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43호
2022년 11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나눔의 실천, 인증샷 찍었어요~” 장학기금 골프대회 ‘성료’



지난 11월 15일 미주 동창회 나눔 골프대회에 참가한 동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 컨트리클럽(LVCC)에서 열린 장학기금마련 대회에는 40여 동문들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이날 5만 달러가 넘는 기부금이 모여 내년 장학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미주동창회 ‘나눔 골프대회’ 5만여 달러 모금 라스베이거스 LVCC에서 40여 동문 참가, 장학기금마련 김종섭 본국 총동창회장 골프코스 제공으로 성사돼

지난 11월 15일 열린 미주 동창회 나눔 골프대회에서 5만여 달러가 모금됐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트리클럽(LVCC)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는 40여 동문이 참가, 나눔을 몸소 실천했다.

대회는 장학기금모금을 겸해 진행됐다. 가장 눈길을 끈 이는 한만섭(공대 48) 동문. 90대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18홀을 모두 소화해 놀라움을 안겼다.

이번 대회는 한국의 김종섭(문리대 66) 총동창회장의 도움으로 성사됐다. LVCC를 소유한 김 회장이 선뜻 장소를 제공, 기금을 모을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노명호(공대 61) 미주 동창회장은 “이번 나눔골프를 통해 기금을 확보, 내년에도 서울대 동창회(SNUAA) 장학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대회 참가 동문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미주 동창회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의 한국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벌여 1인당 1만 달러씩 모두 10만 달러를 지급했다.

SNUAA 스칼라십은 뛰어난 학업성취와 리더십을 보인 한인 인재들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한다.

한편 미주 동창회는 기부자 이름을 딴 ‘지명 장학금’을 제공할 동문들을 찾고 있다. 동창회의 제 1호 ‘지명 장학금’ 기부자는 한홍택 UCLA 석좌교수다.

한홍택(공대 60)·백훈(미대 61) 동문 부부의 성을 따 ‘한백장학금’으로 명명됐다. 한 동문은 5만 달러를 기금으로 출연, 매년 1명씩 1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관련기사=7면>

모교 총장 최종후보에 유홍림 21년만에 사회과학대 출신

유홍림 사회과학대 교수가 차기 모교 총장 후보로 선출됐다.

서울대 이사회는 지난 10월 24일 회의를 열고 유 교수를 최종 총장후보로 선출했다. 이사회에 뽑힌 총장 후보는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

종 임명한다.

간선제인 총장 투표는 재적이사 15명 중 과반인 8표를 얻은 후보가 최종 선출된다.

유 교수를 비롯해 남익현 경영대 교수, 차상균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교수 등 3명이 맞붙어 유 교수가 과반을 획득, 후보로 뽑혔다.

유 교수는 렇거스대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유 교수가 최종 후보가 되

면서 지난 2002년 경제학부 교수였던 정운찬 전 총리(23대 총장) 이래 21년 만에 사회과학대 출신 총장이 탄생하게 됐다.

새 총장은 2023년 1월 31일 퇴임하는 오세정 현 총장의 뒤를 이어 내년 2월 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관련기사=2면>

김성열(치대 61) 동문 모교에 100만 불 기부

김성열(치대 61) 동문이 모교 치의학 대학원에 ‘김성열 치과학술연구기금’으로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30년째 치과진

료를 해오고 있는 김 동문은 미주 동창회의 창업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대 동문의 벤처 회사에 상당액을 투자, 미주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준 바 있다.

현지에서는 ‘노래하는 치과의사’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싱어송라이터’ 엔지니어
이광진(공대 81) 동문
관련기사=4면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폴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 후보 “자유와 신뢰의 플랫폼 만들겠다”

다음은 차기 서울대 총장 후보로 지명된 유홍림 교수가 이사회에서 서울대 발전계획에 대해 자신의 소견을 밝힌 내용이다. 이사회는 남익현(경영 81) 교수·차상균(공대 76) 교수 등 3명의 후보자 가운데 유

교수에 가장 높은 평점을 부여, 차기 총장후보로 지명했다. 유 교수는 학부 기초대학과 연동한 기숙형 교육(RC) 도입 등을 자신의 핵심공약으로 꼽았다. - 편집자.

제 28대 총장 후보로 등록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서울대 총장에 입후보한 것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제대로 직시하고 자유와 신뢰의 공동체라는 대학의 본 모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법인화 이후에도 불신에 뿌리를 둔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규제와 관행은 여전히 우리의 교육과 연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기 흩어져 미래를 향하여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을 뿐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신뢰의 플랫폼, 서울대학교

고등교육의 질적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신뢰의 선순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규정집에서 벗어나 자유의 날개를 펼칠 때, 그 누구도 하지 못할 새로운 문제제기와 도전적 탐구로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지식과 인류를 위한 가치를 창출할 때 국가와 사회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를 그런 자유와 신뢰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플랫폼으로 만드는데 제가 앞장서고자 합니다.

자유롭고 역동적인 교육 연구 생태계

저는 서울대를 둘러싼 법령과 제도, 내부의 운영방식과 관행이라는 두 영역 모두에서 동시에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법과 제도의 틀을 바꾸고, 활력을 위축시키는 규제와 관행을 걷어내야 합니다.

대학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와 권한을 누릴 수 있어야 미래지향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융합교육과 연구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자발성이 존중되고 유



연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자율생태계에서만 가능합니다.

바로 이러한 활력있는 학문공동체를 일구는 것이 제가 앞장서고자 하는 대전환의 목표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개방적 플랫폼

저는 서울대가 세계 지식생태계 속의 중요한 허브가 되려면 서울대만의 우월성을 지닌 교육 연구 플랫폼들을 내부에 많이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계 인재들이 서울대를 찾아 모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개방적 파트너십을 정부, 기업, 타 대학들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첨단과학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활발한 산학 협력은 도전적 연구뿐만 아니라 창의적 교육을 위한 혁신의 양분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전환을 이루는 리더십

저는 지난 40여 년 동안 정치사상을 공부해 왔습니다. 교육자로서 27년간 서울대의 교육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연구자로서 한국정치사상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등의 활동을 통해 학계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정치사상은 현실의 복잡한 갈등구조와 난해한 딜레마의 본질을 파악하여 공동체를 위한 보다 나은 선택을 이끄는 실천적 학문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제가 법인화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대학신문사 주간으로 활동

하면서 서울대의 전체적인 문제구조를 이해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사회과학대학장으로서의 행정경험과 발전기금 모금 활동,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로부터 귀중한 배움은 제가 서울대학교가 처한 현실을 더욱 잘 파악하고 우리 대학이 역동성을 되찾을 방안들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창립과정을 주도한 서울대 싱크탱크 ‘국가미래전략원’은 정부와 사회, 산업계를 연결하는 개방적, 초학제적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융복합적 플랫폼이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 국가와 인류에 대한 기여를 혁신적으로 증진할 수 있다는 저의 판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발전계획서에서 강조하는 ‘전공을 넘나드는 교육’ ‘학부기초대학’ ‘SNU Commons’ 등의 약속도 저의 이러한 핵심 지향을 담고 있습니다.

실천 의지와 용기

처칠이 말했듯이, “성공은 영원하지 않고 실패는 절망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혼자 하려면 불가능할지 몰라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치열하게 소통하며 함께 용기를 발휘한다면 얼마든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앞장서고자 합니다. 자유와 신뢰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부동의 1위 서울대, 세계랭킹은?

미국의 시사주간지 US뉴스&월드 리포트가 최근 발표한 2023 세계대학순위에서 서울대가 국내 1위를 차지했다. 세계 순위는 129위로 예년과 비슷했다. 서울대에 이어 성균관대가 국내 2위, 카이스트가 고려대를 제치고 국내 3위로 올라섰다. 고대는 지난해 3위에서 올해 4위로 하락했다. 연세대는 국내 톱 5.

한편 세계 1위는 올해도 하버드대가 차지했다. 순위발표를 시작한 2015년 이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MIT, 스탠퍼드대, UC 버클리, 옥스포드(영국) 순으로 톱 5 체제를 구축했다.

이어 워싱턴대(시애틀), 컬럼비아대, 케임브리지대(영국), 칼텍, 존스홉킨스대,

예일대, UCL(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영국), UCLA, 유펜, 프린스턴대, UC 샌프란시스코, 토론토(캐나다), 미시건, UC 샌디에고, 코넬 등 미국대학이 상위를 휩쓸다시피 했다.



동창회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부터

연 100 달러 ... 동창회비 제작과 사회공헌 활동 등에 긴요하게 쓰입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Tel: 213-908-5586 | Email: snuaausa30@gmail.com

이광진(공대 81) 동문의 싱어송라이터 도전기 강변가요제 대상 수상한 가수 문희경의 데뷔곡 만들어 ‘그대 영원한 사람 (Everlasting You)’은 코로나 추모곡

이광진(공대 81) 동문은 미시간 한인사회에서 ‘싱어송라이터’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 미시간 동창회 회장도 맡고 있는 등 동문에도 남다른다. 최근에는 웨인 스테이트 음대에 재학중인 학생들과 협업,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곡을 만들었다. ‘Everlasting You (그대 영원한 사람)’라는 자작곡이다. 이 동문과 이 메일로 인터뷰한 내용을 간추려 신는다. - 편집자.



이광진·이호정(음대 81) 동문 부부.

- 원래 음악을 좋아하셨는지?

음악을 좋아하던 형 덕분에 어려서부터 다양한 음악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무엇이든 만들기를 좋아했고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공대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디자인을 공책에 수없이 그리며 커서는 자동차회사를 세우겠다는 야무진(?) 꿈을 꾸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싱어송라이터가 된 계기는?

고등학교 때 모두가 잠든 밤에 공부하다가 지겨울 때면 기타를 튕기곤 했는데 이것이 오래 지속되다보니 실력이 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여름캠프 등에서 싱얼롱 지도를 많이 하였고 행사에 필요한 노래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 누구한테 배웠나?

작곡은 누구에게 배운 적은 없고 기존의 많은 곡들을 따라서 연주하다 보니 곡의 구성이나 화성의 변화에 대해 좀더 이해하게 되고 어찌다가 운이 좋으면 악상도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기타와 피아노를 치고 하모니카도 불지만 레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악보보다는 듣고 따라하는 스타일이지요 (웃음).

- 한국에서 동아리 그룹이나 음악 활동을 한 적이 있으신지?

대학 재학시절 Youth Hostel이라는 여행동아리 활동을 하였는데 여기서 만난 음대 학생들과 같이 당시 유행하던 팝송들을 연습하였지요. 그리고는 카페를 빌려서 팝 콘서트를 두번 열어 친구들을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작곡들을 모아서 발표회를 가진 적도 있었는데요.

이 발표회에 구경을 왔던 문희경이란 숙명여대 불문학과 여학생이 자신이 강변가요제에 참가할 예정이며 앨범도 준비중인데 곡이 필요하니 나의 자작곡을 자신이 부를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했지요. 그래서 성음레코드사에서 발매된 문희경씨의 데뷔앨범에 제 곡이 두곡 실리게 되었습니다. (문희경씨는 그해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나 가수이기보다는 연기자로 더 알려져 있다.)

성음레코드사의 녹음실을 방문하였을

하며 어울려 즐거워하였던 추억도 있습니다. 한국의 가요도 멜로디 중심의 노래들은 다 좋아합니다.

- 지금까지 몇 곡이나 쓰셨는지?

곡을 발표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몇 곡을 썼는지 보다 곡을 만든 후 편곡도 잘



▲ 공대재학시절 음대학생들과의 팝콘서트 장면.

◀ 이 동문의 자작곡 'Everlasting You'를 녹음하고 있는 캐라와 샘.

때 당시 유명 가수들을 몇몇 만나기도 하였으나 국비유학시험에 합격을 하는 바람에 1988년 유학의 길에 오르며 한국에서의 음악활동은 접게 되었지요.

- 누구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던 60년대말과 70년대에는 뛰어난 팝송들이 쏟아져 나오던 때였는데 주한미군의 라디오 방송인 AFKN을 통해서 Casey Kasem이 진행하였던 American Top 40 프로그램을 자주 들으며 많은 팝송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멜로디가 뛰어난 60년대 70년대의 Pop과 Rock 분야의 뮤지션들은 다 좋아합니다. 아마도 제가 노래에서 멜로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비틀스와 퀸(Queen)의 노래들을 즐겨 부릅니다. 몇 년 전 Queen의 자서전적인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크게 히트했을 때 에피소드입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피아노에 앉아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치고 있었더니 지나가던 외국인 여행객 무리가 다가와 다같이 노래를

하고 반주와 노래도 들을 만하게 녹음을 마친 곡이 몇 곡이나 되는 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노래중에 mixing과 mastering까지 마친 곡은 열곡 정도 밖에 안됩니다. 가장 맘에 드는 곡은 '하얀 겨울 밤에'라는 노래입니다.

- 미국서는 어떻게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보면서 애국심이 발동하여 'God Bless Korea (축복하여 주소서)'란 곡을 만들었고 이 곡을 2003년 KBS가 주최한 '아름다운 통일' 작품 공모전에 출품하여 우리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염원을 노래한 작품성을 인정받아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는 다음 링크를 통하여 YouTube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노래는 제가 직접 불렀습니다.

<https://youtu.be/42PG4w2ggOI>

그리고 천안함 피격사건이 일어난 2010년에는 천안함 장병들을 추모하는 '수병은 돌아오라'라는 군가도 만들었지요. 최근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요를 만들고

있습니다.

- 최근 코로나 팬데믹 관련 곡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희생되신 분들이 미국에서만 100만명이 넘습니다. 제가 GM에서 같이 일하던 엔지니어 한 분도 떠나가셨지요.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Everlasting You (그대 영원한 사람)'라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작사, 작곡, 편곡을 하였으며 기타와 키보드를 연주하였습니다. 드럼, 베이스와 피아노의 반주를 위해 세션 뮤지션들이 참가하였고 오보에 솔로도 나오는데 이는 조카인 이인영(음대 13) 동문이 연주한 것입니다.

노래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Wayne State 대학교의 음악대학 학생들인 Cara Forfinski와 Samantha Stafford가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다음 링크를 통하여 YouTube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srUDC7siR-0>

- 미국서도 공연을 한 적이 있으신지?

한인들의 피크닉이나 연말파티 같은 모임에서 공연과 싱얼롱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서울대 동창회 미시간 지부 창립총회에서도 축하공연시간에 흘러간 노래들을 동문들과 같이 부르며 추억에 잠겨보았지요. 이웃집에서 파티를 열면 팝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한번은 옆집 사는 Robinson네가 백야드 파티를 열었는데 사이먼&가펄크의 'Mrs. Robinson'을 불렀더니 Mrs. Robinson이 아주 좋아하더군요.

또한, 팬데믹 전에는 local musician들과 밴드를 조직하여 무대가 있는 식당이나 주점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2020년 봄부터는 사람들이 모임 수가 없게 되면서 밴드 활동도 중지하게 되었지요.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저는 미시간 대학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바로 GM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 30년간을 자동차 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첫 15년간은 미국회사(GM과 DELPHI)에서 자동차부품 설계전문가로서 일하였고 지난 15년은 한국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회사들의 기술개발 및 글로벌 사업 육성을 위해 일해오고 있습니다.

- 지금도 새로 쓰고 있는 곡이 있는지?

고향을 그리는 곡인 '달빛 언덕'의 편곡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이 완성되면 미주 동문들께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세조류 부산물에서 모유 성분 찾다 서진호(공대 71) 동문 ‘15년 연구결실’… 벤처기업 상품 미주 동창회 창업 프로그램과 협업, 시장 개척 기대 커

미세조류에서 엄마 젖을 만들어 판다

미역에서 엄마의 젖, 모유를 만들어낸다면? - 가히 노벨상 수상감이다.

모유의 신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여성이 임신을 하고 아이 출산 후 나오는 모유는 유아기에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첫 음식으로 아기의 장 기능과 면역력을 높여주고 중추신경계 발달에 중요한 콜레스테롤 DHA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모유를 대신할 영양분을 만들 수는 없을까

모교 식품동물생명공학부의 서진호 교수가 미역과 미세조류에서 모유에서 나오는 올리고당의 추출에 성공하면서 이 기술은 역시 동문출신의 벤처기업에서 모유 올리고당(HMO)이라는 제품으로 탄생됐다.

우유는 모유가 될 수 없다

모유는 우유보다 약 15배의 올리고당을 함유하고 있고 올리고당의 종류도 200여 가지로 다양하다. 특히 모유의 올리고당은 푸코오스(fucose)화된 올리고당(푸코실 올리고당)으로 모유 올리고당(HMO, Human Milk Oligosaccharides)으로 불리우며 모유의 약 70%를 차지한다.

반면 소의 젖에 포함된 올리고당은 ‘시알릴 올리고당’으로서 이 소의 젖이 어린 아기에게 꼭 필요한 모유를 대체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모유 수유 권장기간은 약 1년 정도이지만 이 기간을 완전모유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유의 양이 줄거나, 나오지 않고 산모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산모의 직장복귀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같은 모유를 대체할 모유 영양분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공대 화공학과 출신의 서진호 교수는 1990년도부터 식품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0년대 초부터 미래창조과학

부의 ‘차세대 바이오매스단’의 지원을 받으며 연구에 들어갔고 15년만에 연구팀은 미세조류에서 모유에 풍부한 푸코오스화 된 올리고당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연구도중에 실제 모유를 분석하기 위해 소속된 여성연구원의 모유를 어렵게 구해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성분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도 실험분석하고, 미역 속의 푸코코스를 찾아내기 위해 미

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바이오매스를 얻어낸 후 버려지는 부산물에서 모유의 신비를 찾은 것.

미세조류에서 고갈위기에 처해있는 에너지를 얻고, 거기서 모유와 맞먹는 영양분까지 얻었으니 그야말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

서 교수는 “모유에는 면역력, 장 기능 향상 등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며 “아기 뿐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이피 테크놀로지 대표, 식품공학과 85학번인 신 대표의 에이피 테크놀로지 회사는 20년된 바이오 벤처 회사로서 2016년에 모유 올리고당 제조 원천기술을 이전받아 ‘맘스타민 Momstamin’이라는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신철수 대표는 “아기에게 필요한 모유 올리고당 물질을 파우더로 개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낮은 생산가격으로 제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제품 생산 공정을 개발해 나갔고 지난해 2월19일에는 미국 식품의약청 FDA GRAS에서 안정성을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신 대표는 “주력제품의 완성이 예상보다 늦어져서 난관도 있었지만 이제 MOMSTAMIN의 HMO(모유 올리고당)가 분말 유산균 형태의 제품으로 보급이 됐다”며 “뛰어난 면역력 효과, 장 및 뇌기능개선, 근육 감소증과 혈류 유통에도 효능이 밝혀지면서 장 기능의 장애가 있는 성인과 노인 등 온가족이 평생 먹을 수 있는 식품소재로 제품화했다”고 말했다.

“모유를 평생 먹을 수 있다면”

기술 개발자인 서진호 교수와 제품 생산자인 제자 신철수 대표는 한결같이 ‘엄마 젖을 평생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나누면서 “앞으로는 기능성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으로 개발해 가면서 할 일이 많다”라고 말한다.

동남아, 유럽시장에 이어 지난해 부터 미국시장에도 진출한 HMO(모유 올리고당)의 각종 제품은 현재 Amazon과 Momstamin.com 그리고 LA의 한인 약국 등에서 판매중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서진호 교수는 서울대학교의 바이오텍 기술과 창업자들의 투자, 제품화가 잘 이루어지면 제2, 제3의 Momstamin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출현할 것을 기대한다며 현재 미주 동창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국내 서울대 동문 벤처 창업 프로그램이 큰 결실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진호 교수가 한 연구원과 부산물에서 얻은 모유성분 파우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g/L)	
	모유(Human milk)	우유(Bovine milk)
단백질(Protein)	8	32
지방(Fat)	41	37
유당(Lactose)	70	48
올리고당(Oligosaccharides)	5~15	0.05
%푸코실 올리고당(%Fucosylated)	50~80%	~1%
%Sialyated	10~20%	~70%

역산지인 완도에서도 채집과 연구를 계속했다. 서 교수는 푸코실 올리고당을 분말형태로 만들어 내면서 분유처럼 우유에 타 마실 수 있는 기술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그가 모유의 영양소를 찾은 근원지는 일반 미세조류가 아닌 버려지는 ‘부산물’이다. 식물과 미생물(미세조류) 등에

환자나 노인 등도 섭취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자가 제품화에 성공

이 기술을 벤처기업에서 제품화 한 기업가가 서교수의 제자인 신철수(주)에



미주 동창회는 동문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문님이 납부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동창회 활성화 및 동창회보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회보는 이제 월간발행부수 1만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목표를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동문님들의 지속적인 도움을 바랍니다. <회비 및 후원금 납부양식=27면>

“아빠 엄마를 집 뒷마당에 모셨어요” 48학번 윤광식 미시시피대 교수의 영원한 안식처 남은 동기생은 박윤수(미주 동창회 초대 회장) · 김용건(종신이사)

“아빠 엄마를 뒷마당에 모셨어요. 50년 넘게 사셨으니 두 분에게는 이 집이 성역(sanctuary)이나 다름없지요. 지금도 두 분이 사이좋게 지내실 거예요. 정원에서요.”

최근 ‘크리스틴’이라는 여성이 이메일을 보내왔다. 한국어름은 ‘윤펽미’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메일은 부모의 부고를 알리는 내용이었다. 엄마와 아빠가 지난 4월 한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서울대 동문들에게 아빠의 별세소식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뒤늦게나마 이메일을 보낸다고 썼다. 그러고는 집 뒷마당에 부모의 유골을 뿌렸다고 했다.

크리스틴의 아버님은 윤광식(문리대 48). 화학을 전공했다. 문득 조지아의 김용건 동문이 떠올랐다. 미주 동창회 ‘최고령’ 종신이사로 계신 분이다. 혹시 동기생이 아닌가 싶어 전화를 걸었다. 예상은 맞았다. “우린 경성제대 예과시절부터 친구예요. 미국도 같이 왔고...” 목소리가 축축히 젖어있었다.

“광식이 임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가려고 했는데 크리스틴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팬데믹이어서 위험하다고요.” 부음 소식을 듣고는 꼭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크리스틴이 극구 말렸다. “아저씨, 걱정마세요.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안좋으신데. 아빠를 잘 보내드릴테니 걱정마세요”라며...

윤광식 박사는 대학 재학 중 전쟁이 터져 군에 징집돼 2년여를 복무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국방과학연구소(NDRI)에 취업, 몇년을 연구원으로 지냈다. 이곳에서 장차 아내가 될 이해성 여사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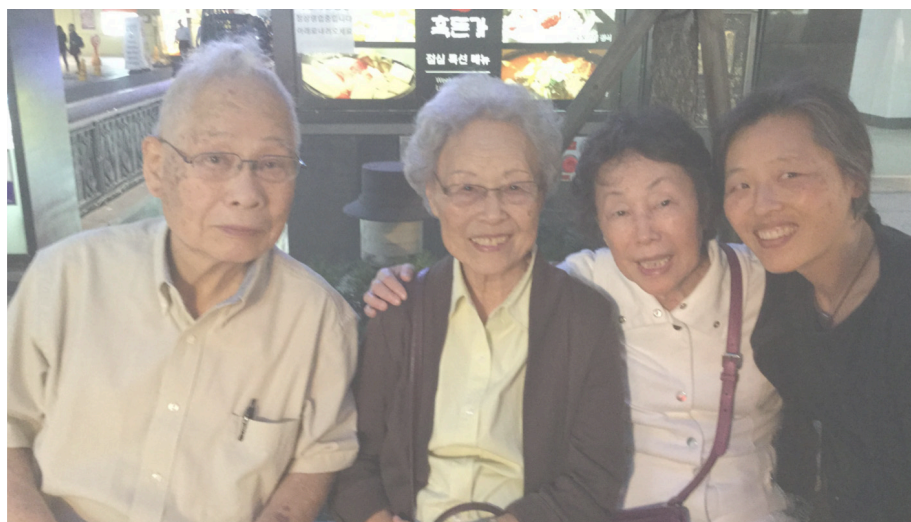
미국에 유학 온 그는 1960년 신시네티 대학에서 화학박사 학위를 땀다. 이듬해 외동딸 크리스틴이 태어났다.

은퇴 후 한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왜 신시네티를 선택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 박사는 “(고등학교) 교과서 저자가 신시네티대 교수여서 이 대학이

화학분야에선 미국 최고인줄 알았다”고 말해 화제가 된 적도 있었다. 윤 동문은 신시네티에서 동기생 친구

옥스포드에 소재한 미시시피대 화학과 조교수로 발령받아 평생을 그곳에서 지냈다.

새 집주인이 흔쾌히 승락, 정원에 유골 뿌려 경성제대 예과 출신, 제자 6천명 이름 외워 딸 크리스틴 “저도 늘 서울대 응원할게요”



왼쪽부터 윤광식 이혜선 부부, 이모, 딸 크리스틴(평미).



손주들과 함께.

를 만났다. 그가 바로 박윤수 박사(물리학)다. 미주 동창회 초대 회장을 지내신 분이다.

메릴랜드대와 캐나다의 리서치 카운슬 랩에서 포스트닥을 끝낸 윤 동문은



유골을 뿌린 뒷마당 정원.

그가 가르친 제자만 해도 6,000명이 넘는다.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 이름을 거의 대부분 외우고 있었다는 것. “아빠는 학생들과 어울리고 가르치는 걸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래서인지 1981년 대학

으로부터 ‘최우수 교사상’(Outstanding Teacher Award)을 받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지요.”

딸은 부모를 화장해 유골을 집 뒷마당에 뿌렸다. 반세기를 그집에서만 살아 그들에겐 영원한 안식처였던 것. 그럼 그 집을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크리스틴은 이미 팔았다고 했다. 새 집주인 역시 미시시피대 교수. 부모님과 이 집의 내력을 설명하자 새 집주인은 뒷마당 정원에 유골을 뿌려도 된다고 흔쾌히 승락해줬다.

“새 집주인 부부 모두 착하신 분들이예요. 함께 추모식도 가졌지요. 지금도 종종 연락하고 지내요. 부모님을 잘 돌봐주시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비록 육신은 떠났지만 영혼은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빠 엄마가 이 집을 짓고 평생을 살았으니까요.”

윤 동문이 가족동반해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해는 2015년이다. 서울대 관악캠퍼스를 찾아가 자연과학대 학장을 만났다. 옛 동승동 예과시절을 떠올리며 많은 얘기를 주고 받았다.

딸 크리스틴은 하버드대 출신의 건축가. 장성한 자녀 둘이 있다.

“이제 아버지 세대의 친구는 딱 두 분만 남아있어요. (조지아의) 김용건 아저씨와 (LA의) 박윤수 아저씨예요. 저 세상에 계신 아빠도 두 분을 무척 그리워하실 거예요.”

48학번 동기생들이 가장 최근 만난 건 5년 전. 김용건 동문의 주선으로 애틀랜타에서 10명이 만났다. 그 모임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박)윤수와는 가끔 통화해요. 멀리 떨어져 만날 수는 없지만.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데 부인이 아프다고 해요. 건강해야할 텐데...”

딸 크리스틴은 다음과 같은 말로 이메일을 마무리했다. “제 부모님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빠도 하늘나라에서 자신이 서울대를 나왔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늘 서울대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낙호(공대 60) 박사 타계

성낙호(공대 60 · 사진) 동문이 지난 10월 22일 한국 방문 중 갑자기 별세했다.

성 동문은 2007년부터 터프츠대 생물공학 과장을 지내는 등 터프츠대에서만 거의 40년을 보냈다. 터프츠대 이전에

는 MIT에서 조교수로 일했다.

SK그룹의 기술자문을 24년이나 지낸 바 있는 성 박사는 한국기업의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재미한인과학기술(KSEA) 30대 회장을 지냈다.유족 측은 부의금은 모두 KSEA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장례식은 지난 10월 26일 서울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미국에선 11월 15일 매사추세츠주 렉싱턴의 더글라스 장의사에서 많은 동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고인과 공대 동기인 한홍택(UCLA 석좌교수) 박사는 평소 건강했는데 세상을 떠났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메멘토 모리’란 말을 절감한다고 애도했다.

기금모금 목표액 5만 달러 10분도 안돼 채워 '기록' 한만섭(공대 48) · 하기환(공대 66) 동문 스포트라이트



왼쪽부터 김종섭(문리대 66) 총동창회장, 박정모(문리대 66), 노명호(공대 61) 미주 동창회장, 하기환(공대 66) 회장.



한만섭(공대 48) 동문.



왼쪽부터 김하란(Mrs. 김상찬), 양수진(간호대 80), 박인희(간호대 67), 강미아(Mrs.강효남).

0... 골프대회가 끝나자마자 라스베이거스 컨트리 클럽(LVCC) 클럽하우스에서 만찬겸 모금행사가 이어졌다. 나눔골프대회 장학기금 모금 목표액은 5만 달러.



하기환(공대 66) 동문이 1번홀에서 티샷을 날리고 있다.

목표액은 10분도 안돼 채워지는 진기록을 수립했다.

이외에도 1,000 달러 기부자도 적지 않아 주최 측은 동문들의 사회공헌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0... 노명호 미주 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김(종섭) 총동창회장을 만난 게 내겐 큰 복이었다”며 “작년 평의원 회의

때도 10만 달러를 선뜻 내놓으셨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이렇게 우릴 도와주시니 고맙다는 말 이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김종섭 총동창회장은 “미주 동창회가 발전해야 서울대 커뮤니티도 더욱 내실 있는 성장을 기할 수 있다”며 “동창회가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젊은 동문들도 참여시켜 동창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0... 이날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동문

많이 실려있어 늘 재밌게 읽고 있다”며 “오늘 대회에서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 동문들이 많은데 감동을 받았다”고 인사를 건넸다.

0... 뭐니뭐니해도 가장 눈길을 끈 동문은 하기환(공대 66) 회장. LA한인회와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내는 등 서울대 동문들 가운데 가장 이름이 알려진 인사다. 내년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 준비위원장으로도 위촉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대회 하루

오래 전부터 관여해 왔는데 오늘처럼 타지역 동문들과 어울리는 건 처음”이라며 주최 측의 배려에 감사해했다.

김상찬 · 강효남 두 동문은 사돈사이



홀컵을 향해 퍼팅을 하고 있는 강효남(공대 67) 동문.

여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0... 아침식사와 만찬도 역시 김종섭 회장 제공이었다. 특히 최고급 ‘토마호크 비프’가 메인디시로 나와 눈요깃거리는 물론 맛도 일품이었다. “골프장 소유주가 김 회장이어서 셰프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며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사돈이 같은 조 ... 각듯이 예의 갖추 ‘화제’ ‘토마호크 비프’는 눈요깃거리, 맛도 일품 김종섭 회장 “젊은 동문들 참여 많았으면”

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한만섭(공대 48) 박사. NASA와 보잉항공사에서 엔지니어로 활동한 바 있는 한 동문은 삼성항공우주연구소 소장 등을 지내며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한국 최초의 로켓발사에 성공한 과학자로 평가받는다.

한 동문은 이날 18홀을 거뜬히 돌아 함께 1조로 라운딩했던 오흥조(치대 56) 전 미주 동창회장의 부러움을 샀다. “오늘 한 선배로부터 많은 걸 배웠다”는 오 회장은 “내가 5년 후 한 선배처럼 (골프를) 잘 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해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다.

한 동문은 “동창회보에 동문들 얘기가

전 신생항공사인 ‘에어 프레미아’ 갈라쇼에 참석한 뒤 다음날 새벽 LA에서 직접 차를 운전해 대회에 참석하는 열의를 보였다. 하 동문은 에어 프레미아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하 동문은 “김종섭 총동창회장과는 66학번 동기이자 서울대 교수를 지낸 큰아버지(하상락)의 제자여서 인연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 동창회 행사에 자주 나오겠다”고 다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0... 최경선(농생대 65) 동문은 북가주 동창회장 자격으로 대회에 참가, 김상찬 · 강효남(공대 67) 동문 등과 라운딩을 즐겼다. 최 회장은 “미주동창회에는



만찬을 즐기고 있는 동문들. 김종섭 회장과 인을 곁들인 디너를 제공했다.



이날 대회에는 여성동문들과 배우자들도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최고급 ‘토마호크 비프’가 메인 디시로 나와 입맛을 돋구었다.



정문앞에서 기념촬영 지난 10월 16일 열린 모교 홈커밍데이 행사엔 미주 동문 80여 명을 포함해 2,000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3년만에 대면행사로 열려 미주 동문들도 모처럼 모국 나들이를 즐겼다.

“버들골아 반갑다” 모교 홈커밍데이 미주 동문 80여 명 참여 … 5박6일 여행도

모교 관악 캠퍼스 버들골이 지난 10월 16일 3년만에 가을 손님을 맞이했다. 팬데믹 상황이 나아지고 하늘길이 열리면서 미주 동문 80여 명도 모교를 찾았다. ‘홈커밍데이 동문 나눔 한마당’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미주 동창회 노명호(공대 61) 회장을 비롯해 오인환(문리대 63), 윤상래(수의대 62) 전 회장들과 임원진은 행사에 앞서 총장실을 방문해 오세정 총장과 담소를 나눴다. 미주 동문들은 서울대 측의 특별배려로 구장각, 도서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미주 동창회는 Mall SNUA 상품권 2배(140만원 상당)를 협찬했다.

김종섭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3년만의 만남이라 더욱 감개무량하다”며 “특히 멀리서 찾아준 미주 동문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축하 공연에는 걸그룹 ‘레드 벨벳’ 멤버 웬디와 ‘미스트롯’에서 인기를 모은 홍자 등 유명가수들이 나와 흥을 돋웠다.

워싱턴 D.C.의 박평일(농생대 69) 동문은 “원래 서울대 행사는 ‘노잼’이라고 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실제 와서 보니 행사도 재밌고 또 캠퍼스에 단풍이 곱게 들어 마치 그림엽서보는 기분이었다”며 “내년에도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총동창회 측은 이날 참가 동문 전원에게 방한 조끼를 기념품으로 기증했다.

한편 미주 동문들은 행사 다음날 최진석(법대 64) 동문의 안내로 5박6일 일정의 제주도와 동해안 관광일정을 소화했다. 홈커밍데이 행사와 관광여행을 화보로 꾸몄다. - 편집자.



축하 공연

금난새(음대 66) 동문의 지휘로 열린 축하공연. 주최 측은 삼익홀에서 열린 공연에 미주 동문들을 초청하는 등 특별 배려했다.



미주 동창회 텐트

행사장인 버들골에는 각 단과대 별로 텐트가 마련됐다. 사진은 미주 동창회에 배정된 텐트.



총장 예방

행사에 앞서 오세정 총장을 방문해 환담을 나눴다. 김종섭 총동창회장도 참석해 미주 동문들을 환영했다.



천지연 폭포쯤이야!
대부분 70대 후반의 시니어들이지만 40대 못지 않은 체력을 과시. 빠듯한 일정이었는데도 거뜰히 소화해 냈다.



또 만나요!
5박6일 일정의 관광여행을 마무리 하며 설악산 신흥사 입구에서 기념촬영. 내년에도 만날 것을 기약하며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해피버스테이!
여행길에 생일을 맞은 동문들. 왼쪽에서부터 홍경삼(문리대 61), 조성준(의대 58), 이종열(상대 65) 동문.



여고동창생이네요
이번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숙명여고 동창생들. 왼쪽에서부터 최수지(Mrs. 최진석), 허지영(문리대 66), 노현숙(Mrs. 노명호), 방효신(약대 56).



미대의 미녀 4총사?
미대 61학번 동문이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만나 회포를 풀었다. 왼쪽부터 오성주, 오세정 총장, 김경옥, 신정연, 김용애 동문.



지도가 이렇게 커?
규장각에 소장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김정호가 철종 12년(1861년) 전국을 직접 답사하고 실측해 만들었다.

새로운 도약 당신과 함께

마 음 을 잇 다
SNU 이음장학금



©SNU Photo Gallery



SNU 이음장학금 은 선한 인재 장학금의 생활비 지원을 넘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해외 견문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적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장학금입니다. 동문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SNU이음장학금 프로그램

- 단기 해외 방문 지원(최대 4주/1인 500만원 이상)
- 해외 단기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한 학기/1인 1,500만원 이상)

SNU 이음장학금 수혜학생 이야기



1기 이음장학생(의예과)

미국에 살고 계신 선배님들을 보니 제가 서울대학교 학생이란 사실이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고, 이렇게 대단하신 선배님들이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만나보지 못할 선배님들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분들과 정말 가족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의 경험은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힘든 의대 생활을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행복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휴대폰으로 찍어
america@snu.ac.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SNU 이음장학금 간단 참여신청서

[EUM22-11]

성 명: _____ 연락처: _____
학과(특별과정): _____
약정금액: _____
Pay to the order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Tel. +1-212-768-9144 Fax. +1-212-768-4494 E-mail. kenneth@klgroup.cp

LA |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1-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

SEOUL | SNU Research Park Main Building,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el. +82-2-871-8004 E-mail. snuf@snu.ac.kr

부인이 '서프라이즈' 생일선물 벤자민 홍 동문 골드이사 가입

“남편에 '서프라이즈' 생일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11월 3일 90세 생신을 맞은 벤

자민 홍(문리대 53) 동문의 부인 비비안 홍 여사가 남편은 물론 미주 동창회에 뜻깊은 선물을 안겼다.

홍 동문은 생신 이전까지는 종신이사(3,000 달러)

였다. 그런데 부인이 남편을 골드이사(1만 달러)로 업그레이드 한 것이다.

90세 생신을 두 달 앞두고 부인은 동창회 임원에 문의를 해왔다. “남편을 골드이사에 가입시켜드리고

싶는데 얼마를 더 내야 하느냐”고 물었다.

7,000 달러만 더 내면 골드로 승격

된다는 임원의 답변에 홍 여사는 “그러면 남편 생일 모임 때 드릴게요”라고 약속했다.

홍 여사는 생일 파티가 시작되기 앞서 동창회 임원에 체크를 건넸다.

약속을 지킨 것이다.

“남편은 자신이 서울대학을 나왔다는 것에 자부심이 매우 컸어요. 모교를 방문해서 기부도 많이 했고요. 앞으로 미주 동창회 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창회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부터” 연 100 달러…회비 납부율 8%도 안돼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정상을 되찾아 가고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지구촌 곳곳에 재앙을 뿌려뒀던 코비드도 이제 거의 사라질 것 같습니다.

미주 동창회도 동문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장을 이룬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전국 각 지역의 200여 동창회장님들과 종

동창회는 비영리단체여서 수익 창출 사업이 없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동창회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연 100 달러에 불과하지만 이 돈이 모아지면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창회비는 동창회보 구독료가 아닙니다. 연 회비는 동창회보 제

수익사업 없어 회비에 의존 대부분 회보 구독료와 혼동 사회공헌 활동 등 재원 필요

신이사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31차 평의원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난 10월말 모교에서 열린 홈커밍데이 행사에는 80여 동문들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미주 동문들의 모교애를 칭송하는 분들이 많아 저 또한 뿌듯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동창회 발족 취지에 걸맞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참여해서 서울대의 대외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창회 사상 처음으로 전국의 한 국계 인재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도 펼쳤습니다. 앞으로 한인사회는 물론 미국을 이끌어갈 대학생 10명을 계속 선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단체들에 격려금을 지급하는 한편 앞으로 동창회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관악연대)를 위해 특별 지원금을 배정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매달 발행는 동문소식지 '미주동창회보'도 지면을 대폭 쇄신해 '읽히는 신문'으로 거듭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그러나 재원이 확보돼야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작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에 두루 쓰입니다.

물론 회보제작에는 큰 돈이 들어갑니다. 발행 부수도 이제 거의 1만 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2년새 인쇄비 우송료 등 제작원가가 큰 폭으로 올라 동창회 재정을 우려해야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창회비 납부 동문(회보 구독 기준)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 미주 27개 지부가운데 회비 납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신생 지부' 미시간으로 15.40%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전국 평균은 8%에도 못미칩니다.

동창회비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자양분이 될 때 비로소 동창회가 성장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동문으로 서울대학을 사랑하신다면 동창회비 납부는 그리 부담이 크지 않은 '의무'라고 믿고 싶습니다.

동창회의 주인은 바로 동문들이십니다. 연 회비 100 달러 납부는 물론 종신이사(3,000 달러 이상)에 가입하셔서 동창회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문님들의 건승을 빌며 서울대 동문님들의 많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미주 동창회 회장 노명호 드림.

하버드대 김광수 교수 동창회 종신이사 가입

김광수(자연대 73) 동문은 현재 하버드대 의대 교수다.

뉴잉글랜드 동창회에서 장학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동문들 치고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동창회보를 꾸준히 읽고 있어요. 내용도 알차고, 다양하고 ... 무엇보다 젊은 동문들의 '기'를 살려줘 맘에 들어요.” 김 동문이 종신이사에 가입한 배경이다.

김 동문은 널리 알려진대로 신경생물학과 줄기세포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세계 최초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 본인의 피부세포를 도파민 신경세포로 변형해 뇌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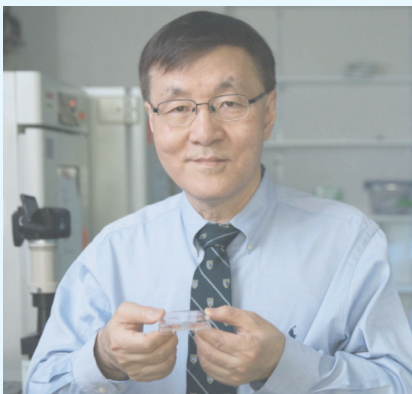
상치료에 성공해 화제가 됐다.

김 동문의 이같은 파킨슨병 환자의 임상치료 성공 소식은 뉴욕타임스 등 전세계 유명 일간지에 보도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파킨슨병은 치매, 뇌졸중과 더불어 3대 만성 퇴행성 뇌신경계 질환이다.

동창회에도 열성적인 김 동문은 특히 관악연대 세대에는 '멘토'로 불릴만큼 존경을 받고 있다.

한편 김 동문은 올해 제 63회 3.1 문화상 자연과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재단법인 3.1 문화재단이 매년 시상하는 상으로 김 동문은 유도만능줄기세포 연구와 파킨슨병 치료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영신의 헬스푸드(3)

‘뇌 건강을 위해 꼭꼭 씹어 드세요!’

얼마전 한국에 갔다가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다. 친구들 반 정도가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이 치매를 앓고 있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보다 치매가 참 많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었다.

100세 시대에 나도 지금부터 신체 건강뿐 아니라 뇌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다. 뇌 질환으로 인해 치매가 걸리기도 하지만 평균수명 이상이 되면서 치매가 확연히 증가하는 것을 보면 뇌의 퇴행이 치매와 관련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치매의 가장 큰 문제는 인지 기능의 저하이다. 어떻게 하면 뇌의 인지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아기들의 인지 발달 원리를 보면 인지의 퇴행을 막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인지 발달의 권위자인 피아제는 영유아의 인지발달은 오감의 자극과 근육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뇌과학이 정교하게 밝혀지기 전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으나, 수많은 뇌과학의 연구 결과 인지 발달이 신경과 신경의 네트워크의 결과이고, 네트워크는 오감자극과 근육 활동이 이루어질 때 생긴다는 것이 밝혀져 그의 이론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일상생활에서 오는 오감자극과 근육의 움직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끊임없이 뇌에 자극을 주고 자극이 종합되어 인지가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뇌자극원은 음식이다. 음식은 다양한 맛, 향, 질감, 색 등을 가지고 있어 뇌에 가장 다양한 자극을 준다. 또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는데 특히 씹고 삼키는데 사용되는 근육은 매우 정교하게 작동한다.

신체 중 목 윗부분을 관장하는 뇌신경이 12개가 있는데, 한번의 삼킴을 위해 뇌신경 6개와 26개의 근육이 필요하다. 과학자들은 씹고 삼키는 것이 걷고 달리는 것보다 더 힘들고 정교한 근육과 신경의 작용이라고 한다.

씹고 삼키는 것이 발달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업인가를 깨달은 일화가 있다. 1998년부터 약 20년간 삼성서울병원에서 어린이 전문 영양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식품알레르기 클리닉 오픈 멤버로서 참여하고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의 식생활을 10여 년간 관리해왔다.

언젠가 식품알레르기가 매우 심한 18개월 아이가 내원하였는데 대부분의 식품이 아토피피부염을 악화시켜 젓

병으로 알레르기 특수 분유만을 먹고 있었다. 정상적인 식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식품을 찾아 다양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아기가 젓병으로 먹는 것 이외에는 입에 들어오는 어떤 음식도 먹지를 못하는 것이었다. 섭식 장애가 있는 아이처럼 음식이 들어오면 입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입에 물고 있다 뱉어냈다.

처음에는 씹고 삼키는데 문제가 있는 선천적 섭식발달장애가 있는 아이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이는 발달에 전혀 문제가 없는 아이였고 단지 고형식을 제때 먹지 못해 발생하는 후천적인 섭식의 문제였다.

정상적인 아이들은 때 되면 알아서 씹고 삼키게 되는 것으로 알았던 나로서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경험이었다.

이후 씹고 삼키기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씹고 삼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완성되는 과정인지를 알게 되었다.

젓만 빠는 아기가 다양한 질감의 음식을 완벽히 먹기 위해서는 생후 6개월에 이유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질감의 식품을 열심히 씹고 삼키는 훈련을 생후 18개월까지 거의 1년을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야 6개의 뇌신경과 26개의 근육이 잘 조화를 이루어 잘 씹게 하고 음식이 기도도로 들어가지 않고 식도로 무사히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씹고 삼키기가 이렇게 정교한 과정이다 보니 나이가 들면 먼저 퇴행이 되어 노인의 연하곤란의 문제를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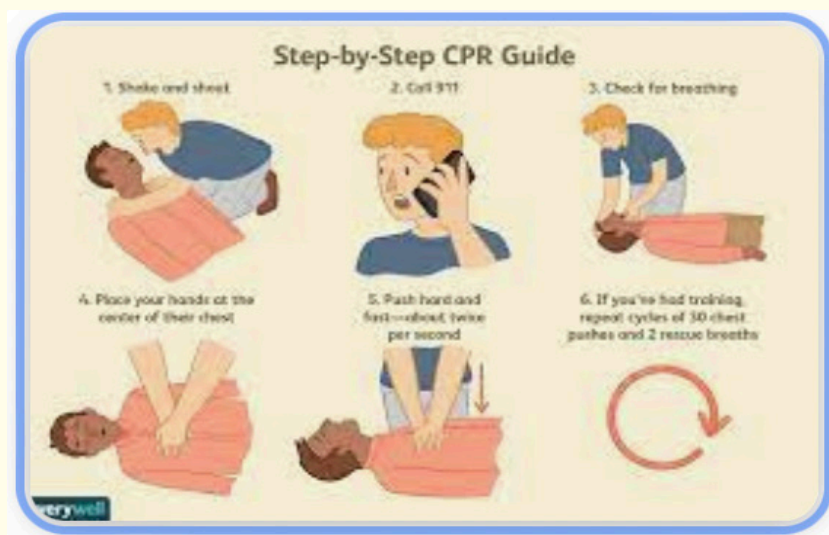
음식을 씹고 삼키는 정교한 근육의 움직임과 신경의 조절작용은 뇌의 신경망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주요 자극원이며, 씹기 능력이 오래 유지된 노인의 인지가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해준다.

음식을 꼭꼭 씹으면 근육자극만이 아니라 음식에서 오는 오감을 잘 느끼게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극이 뇌에 전달될 수 있다.

치매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하는 여러가지 요법에 대한 정보가 많아졌다. 그러나 실천 의지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정보는 있으나 무용지물이다.

반면 음식은 매일 먹어야 하는 것이니 다양한 질감의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제 뇌건강을 위해 음식을 꼭꼭 씹으면서 음식이 주는 오감의 향연을 즐겨보자.

〈식품영양학 박사〉



심폐소생술(CPR) 어떻게 하나

‘이태원 참사’ 이후 관심 높아져

한국의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CP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심폐소생술은 무호흡 또는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시행하는 응급처치다.

CPR을 시행하기 앞서 쓰러진 사람이 호흡 또는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은 최대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무호흡 또는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가슴압박을 시행해야 한다. 대부분 심장의 위치가 왼쪽 가슴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심장의 위치는 우리 몸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우리 몸의 양 갈비뼈를 이용해 가슴압박 지점을 잡을 수 있다. 양 갈비뼈

법이다.

CPR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심폐소생술과 다른 하나는 자동 심장충격기(AED)를 이용하는 것이다. AED가 없으면 가슴압박을 시행해 구조대원(파라메딕)이 도착하거나 쓰러진 환자의 의식 및 호흡이 회복되기 전까지 시행해야 한다.

먼저 환자의 어깨를 위에서 아래로 두드리며 ‘are you okay?’ 라고 말을 한다. 의식이 없다면 환자의 입에 귀를 갖다대고 시선은 배 아래쪽을 보면서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 반응이 없거나 호흡이 없으면 즉각 911에 신고해야 한다.

깍지 낀 손으로 가슴압박 30회 실시

‘골든타임’은 4분, 즉각 911 신고해야

가 만나는 지점에 손을 올린 다음 약 두 마디 정도 올라온 부위를 가슴압박 지점으로 잡으면 된다.

CPR은 심장마비 4분 이내에 시행해야 하는데 이 시간을 일컬어 ‘골든타임’ 이라고 부른다. CPR은 심정지 환자에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에는 산소가 녹아있어 약 6분정도까지는 새로운 산소가 유입되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심장의 제 기능을 찾아주지 않으면 뇌가 손상된다.

심정지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한다. 그 다음이 직장과 길거리 등으로 나타나는데 CPR을 배운다는 것은 내 가족을 살리는 유일한 방

주변에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다면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지목해 911에 심정지 환자가 있다고 신고 요청을 해야 한다. 이는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누군가가 신고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슴압박을 할 때는 양 손을 깍지 낀 상태로 손꿈치 부분이 가슴압박 지점에 정확하게 닿도록 한다. 속도는 분당 100~120회, 깊이는 약 5cm로 가슴 압박 30회를 시행한다.

이어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하는데 만약 제대로 된 인공호흡을 하지 못한다면 가슴압박시행술만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공호흡은 환자의 고개를 젖혀 호흡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를 확보한 후 2회를 실시한다.

윤치호 일기 연구서 출간한 김태형(의대 57) 동문 “애국가 작사자는 윤치호, 친필 가사가 결정적 증거”

최근 한국에서 부쳐온, 막 출간된 책을 한 권 받아 읽었다. 구한말 지식인이자 최초의 에모리대 유학생이었던 좌옹 윤치호(1865~1945)의 일기를 읽고 분석한 책 ‘윤치호 선배를 기리며’이다.

윤치호는 애국가의 유력한 작사자로 알려졌다. 그러나 친일 행적 때문에 평가가 곤혹스러워진 인물이다. 책의 저자는 애틀랜타 한국학교 2대 교장을 역임한 올드타이머 시인이자 에모리대 의과대학 명예교수인 김태형(의대 57) 동문이다.

김 동문은 의대 졸업 후 공군 군의관을 마치고 1966년 미국에 왔다. 보스턴, 뉴욕 등지에서 수련의를 거친 뒤 1978년부터 에모리대 의과대학에서 20년간 소아 종양 분야 연구와 진료로 명성을 쌓았다.

1997년 서울 아산병원 초청으로 서울로 돌아가 8년간 골수이식 전문 뇌 센터를 이끌었고, 2005년부터는 국립암센터에서 3년을 더 일한 뒤 2008년 다시 애틀랜타로 돌아왔다. 김 동문의 호 ‘아해’는 아침 해라는 뜻이다.

- 윤치호는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 어떻게 이런 책을 쓰게 됐나요?

“좌옹 윤치호는 1890년부터 3년간 애틀랜타에서 공부한 에모리대 최초의 한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에모리대학과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선배’ 윤치호에 대한 관심은 당연했습니다.

부임 초기 저를 환대해 주고 윤치호 일기를 소개해 준 에모리대 레이니(Laney) 총장과의 인연도 있었지요.”

- 윤치호 일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윤치호는 1883년부터 평생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한자로, 1887년부터 1889년까지는 한글로 쓰다가 1889년 12월부터 영어로 썼습니다. 50년 이상 쓴 그 영어 일기가 지금 에모리대학에 소장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50년 넘게 꾸준히 일기를 썼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역사적 유명 인물과의 관계, 시대 상황 등이 소상히 담긴 기록이어서 사료적 가치도 높습니다. 조선 왕들의 일기인 일성록이나 이순신의 난중일기처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 일기를 통해서 본 윤치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구한말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습니다. 영어는 물론 일본어,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프랑스어까지 익힌 어학 천재이기도 했어요. 미국 5년 유학 후 조선으로 돌아가 서재필·이상재 등과 함께 독립협회를 이끌었습니다. 국권 침탈 후엔 구속된 민족 지도자 석방에 앞장서다 투옥까지 됐고, 조선어사전편찬회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계몽과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윤치호의 호가 좌옹(佐翁)인데 ‘도와주는 늙은이’라는 뜻입니다. 뜻 그대로 윤치호는 평생 누군가를 도우며 살았던 사

람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현실을 살펴야 했고 일본에 협조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친일로 낙인찍힌 사람이지요.”

- 한 사람의 평생을 무 자르듯 이쪽이나 저쪽이나 딱 잘라 평가하기란 참 힘든 일이긴 합니다. 윤치호같이 우리 근현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식민지 시대는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안창호나 이승만처럼 해외로 나간 사람은 독립투사로 남았지만, 국내

“윤치호가 애국가 작사자라는 연구는 이미 많이 나와 있지만 공식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955년에 애국가 작사자 규명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쳤지만 ‘윤치호가 맞다 11표, 아니다(기권) 2표’로 나와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작사 미상으로 남았습니다.

그런 결정 이면에는 윤치호로 대표되는 기호파와 안창호를 추종하는 서북파의 기 싸움이 크게 작용했고, 윤치호와 악연이 많았던 위원장 최남선(기독교독립선언문 작성자)의 의중도 일부 작용했던

“48세 무렵부터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풀코스를 36번 완주했고 보스턴 마라톤에도 3번 출전했습니다.

제가 73세 때인 2012년 보스턴 마라톤에도 참가했는데 당시 355명의 조지아 참가자 중에서는 최고령이었습니다. 덕분에 AJC 신문에 대문짝만한 인터뷰도 실렸었죠. 마라톤 덕분에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땀 성화 봉송도 했고, 당시 KBS TV에서 마라톤 중계 해설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뛰지 못해요. 3년 전 폐암 수술을 받았거든요. 대신 요즘은 아침마다 꼭 걷습니다.”

- 은퇴 후 문학활동에 심취하면서 시인으로도 등단하셨는데.

“고교 때 문리대 국문과를 꿈꾸었을 정도로 문학을 좋아했어요. 부모님 뜻을 좇아 의대로 진학하긴 했지만요. 이제 은퇴하고 나니 다시 옛날 기질이 되살아난 것 같아요. 원하던 책도 마음껏 읽고 간간이 시도 쓰는 일이 즐겁고 좋습니다.”

김 동문은 한국에서 2019년 ‘월간 신문에’를 통해 등단한 후 활발한 시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한국 방문 때도 자전적 삶을 돌아본 시 ‘길’을 발표, 호평을 받았다.

“재봉틀 머리에 인 엄마를 따라나선 6.25 피란길 / 그때 울음 울며 따라오던 꼬마 동생 생각난다 / 4.19의 핏빛 함성 귀 뚫던 청와대 가는 길목 / 탱크와 마주치던 학우들 생각난다 // 산타이고, 카일라스 순례의 길 / 늘 ‘언제가는’에 있었으나 / 정치가 연예인의 레드카펫은 / 눈에 담기지 않았다 // 얼굴엔 주름 깊어 / 자아를 찾아가는 길 / 산을 찾아가는 길 / 아직 보이지 않는구나, 너무 멀구나” (아해 김태형 ‘길’ 전문)

-한인사회를 위한 봉사도 많이 하셨지요?

“애틀랜타 한국학교와 오랜 인연을 맺었습니다. 1980년대에 제가 2대 교장을 했고 아내도 20년 넘게 교사로, 또 교장으로 헌신했어요. 지금도 부부가 함께 이사로 돕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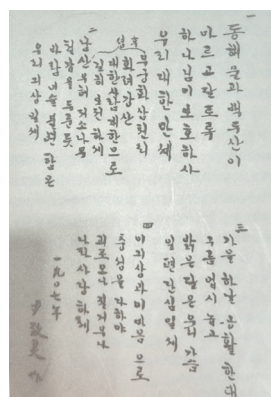
- 마지막 질문입니다. 책을 내셨는데 출판기념회라도 해야 하지 않나요?

“책을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서 초판은 이미 한국에서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미주에선 그냥 가까운 지인들과 나눠 읽으며 조촐한 품평회 정도로만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도 시대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김 동문은 이번 책을 통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어떻게 다시 볼 것인가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예민한 사안이라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원 사료에 근거해 목소리를 높인 김 동문은 ‘할 말은 하는’ 천상 지식인이었다.

글·사진=이종호(애틀랜타중앙일보 대표/동양사학과 81)



에모리대 의대 명예교수 김태형 동문이 윤치호 일기를 연구해 출간한 ‘윤치호 선배를 기리며’(도서출판 책나라, 2022 9월 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상단 왼쪽)

김태형 동문이 2012년 보스턴 마라톤 조지아 최고령 참가자로 소개된 미국 신문을 보여주고 있다.(상단 오른쪽)

에모리대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윤치호 친필 애국가 가사. ‘1907년 윤치호 작’이라는 서명이 있다.(하단 왼쪽)

한미 양국서 소아종양 전문의로 큰 명성 한국학교 교장 등 한인사회 봉사도 열심 “윤치호 친일 행적 떠나 균형 평가 필요”

에 남아 일제의 눈치 보며 나름 헌신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변절자로 몰렸고 결국 친일파로 낙인찍혔습니다. 일기를 읽어보면 윤치호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현실 안에서 민족의 안위와 갱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았던 거지요. 그의 친일이 옳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윤치호의 경우는 자기희생적 면이 많았기에 친일이라는 말보다는 실용적 용일(用日) 또는 전략적 용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역사가도 아니고 전문 연구자도 아니지만, 책을 쓰면서 앞으로 윤치호 연구가 좀 더 활발해져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균형 있게 평가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애국가 작사자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셨는데요.

것 같아요. 하지만 윤치호가 애국가 작사자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그가 친필로 남긴 애국가 가사입니다.

지금 에모리대학에 소장돼 있는데 윤치호가 1945년 작고하기 전 셋째 딸에게 써 준 것이지요. 여기에 ‘1907년 윤치호 작’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최근 작고한 연세대 김동길 교수의 증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김 교수가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한 김활란에게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해방 후 개성에 은둔하고 있는 윤치호를 찾아간 김활란에게 ‘나를 친일파로 모는 사람들이 애국가를 부르지 않겠다고 할지 모르니 내가 지었다고 말하지 말아요’라며 당부했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 책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김 동문에 자신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마라톤을 열심히 하셨다면요?



잊지 못할 첫 추수감사절



한정희
미대 81

뉴욕 관광의 꿈에 부풀었는데 ... OMG

30년 전 교환교수로 2년간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예정으로 미국에 온 우리 가족은 달력에 빨간 숫자가 연달아 있는 생스기빙데이 연휴를 발견하고는 이 황금연휴(?)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연구를 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개념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우리는 모처럼의 연휴를 ‘알차게’ 즐겨보자는 생각으로 이타카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카도 불러내 뉴욕에서 만날 계획을 세웠다.

당시 우리가 살고 있었던 테네시주 내쉬빌은 컨트리 음악의 발상지라고는 하지만 남부 사투리에 말도 천천히 하는 시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모처럼 뉴욕관광을 할 꿈에 부풀었다. 뮤지엄, 쇼핑, 고급 레스토랑, 뮤지컬 관람 ... 호텔예약도 순조롭게 마쳤다.

고생 고생해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도착했는데 ... OMG! 거의 모든 상점의 문이 닫혀있었고 레스토랑 조차 찾기 어려웠다. 뉴욕이 텅 빈 도시 같았다.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있는, 가족이 중심인 나라, 미국을 좀 더 알게 됐다고 할까.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김상찬
문리대 65

올해는 6~7명 모여 조출한 디너

처음 미국에서 맞은 생스기빙데이는 거의 50년 전이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아마도 혼자서 지나쳤던지 아니면 아는 분에게 초청받아서 터키를 같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나 혼자 유학을 와서 한동안 지냈었기 때문이다.

이후 결혼을 해 가족이 커지고, 누이들 두분 가족이 LA로 이민을 오게 됨에 따

라 추수감사절 식탁이 점점 풍성하고 커지게 되었다.

아이들이 대학을 다닐 때에는 20여 명이 우리집에 매년 모여서 터키와 햄으로 전통적인 생스기빙데이 디너를 가졌다. 하루 종일 모여서 파티를 즐겼다.

그러다가 점점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이제는 아이들도 다 각자 가정을 꾸려서

나가고, 또한 오랫동안 살아계셨던 어머니도 돌아가셨다.

올해도 예년처럼 전통적인 터키 디너를 생각은 하고 있지만, 훨씬 작은 조출한 파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마 6~7명 가까운 가족끼리 모여서 칠면조도 제일 작은 놈으로 준비하려고 생각중이다.



박종수
수의대 58

누님 친구댁 디너 평생 못잊어

우리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미시건주 앤아버에서였다. 1967년 10월 4일 디트로이트 공항에 도착, 미시건 대학이 있는 앤아버의 누님댁에서 처음 3개월을 보냈다.

11월에 처음 맞은 추수감사절은 내 평생 잊을 수가 없다. 누님 친구되시는 분

댁에서 미국의 전형적인 추수감사절 만찬을 대하면서 한국에서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찬란한 터키와 각종 요리는 아름답고 맛있어 보였으며 맛있게 실컷 먹었다. 지금도 그분들을 잊을 수 없고 감사해하고 있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뉴욕에 살고 있는

큰 딸 집에서 온식구가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저녁식사 후에는 사돈댁에서 디저트를 먹는다. 40여 명의 식구들이 오랜만에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참으로 기쁘다.

모든 동문님들도 즐거운 생스기빙데이가 되시기를 간구한다.

어찌 이 하루만 감사하겠는가?

참 오래 전 일이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보스턴 근교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았다. 우리가 사는 옆집, 몸이 약간 뚱뚱하고, 나만 보면 무엇인가를 항상 말하고 싶어 하는, 웃음 잘 짓는 아주 후덕하게 생긴 나이가 좀 듬직한 미국 아줌마였다. 바로 옆 병원의 간호사였다.

추수감사절이 되어 그집의 식탁에는 커다란 터키 한 마리가 덩그러니 올라왔고, 소소하게 차린 음식 몇 가지를 놓고 아들인지, 딸인지 가족과 모여 살아온 1년을 감사하며 서로 돌아가며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나는 몇대를 거쳐 온 기독교 집안에서 살았음에도, 이런 풍습은 없었다. 동서양의 기독교 문화의 다른 점을 그 때 알았고, 이 아름다운 광경은 두고두고 나의 좋은 기억에 담아 두고 있다.

그 후 한참 세월이 흘러 버팔로에서 살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친구가 왔다. 그 시어머니 미국 구경 시켜드리고 나이가 가라 폭포 구경도 시켜 드릴 겸하여 우리 집에 하루 이틀 묵게 되었는데 그때가 마침 추수감사절 때였다. 나는 작은 터키 한 마리를 굽고 미국식 추수감사식탁을 근사하게 뽐내 보려고 상을 차렸다.

친구는 고기 한쪽을 먹더니 별 표정이 없었다. 내가 어때냐고 물으니 선뜻 대답이, “내사 펍펍하고 누린내 나서 묵 묵겠다” 고 했다. 그 친구 시어머니는 아예 한쪽 맛도 못보시고, 씁쓸한 식탁이 되었다. 얼마나 황당하고 민망스럽던지, 이제 절만 되면 기억이 난다.

보스턴에 잠깐 살 때 나는 청교도들이 처음 도착했던 플리머스 몇 번 찾아가 보았다. 단지 굳은 신앙 하나만을 가지고 순수한 신앙을 심고자 이 땅을 찾아 온

청교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믿겨 림이 되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그 좋은 텃밭에서 잘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때때로 그 감사를 잠시 잊을 때가 있다.

이 나이가 되면 그러저럭 대강 갖추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무엇인지 하루 종일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 무엇이 부족해서일까? 무엇이 모자라서일까? 욕심때문이었지.

지나 온 먼길을 되돌아 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이상적인 사회도 이상적인 인간도 없는 것 같다. 우리 서로 배워가며 격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생각하고 바르고 좋은 것을 추구해 가며 노력하며 사는 것만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바람이다. 거기에 덧붙여 감사하는 마음까지 있다면야 더 할 나위가 없이 좋으련만.



최아영
Mrs. 최홍락 · 의대 54

“엔돌핀이 펑펑 솟아나요”

문리대 ‘오리지널’ 멤버들의 특별한 모임 김순길 동문, ‘딜럭스’ 메뉴로 우정에 보답

“모임을 1주일 앞두고는 엔돌핀이 펑펑 솟는 걸 느껴요. 비용요? 전혀 부담이 안됩니다.”

지난 11월 11일 남가주 문리과대학의 ‘오리지널’ 멤버들이 한데 모였다. 장소는 김순길(외교학과 61) 동문의 다우니 자택. 부부 동반으로 30여 명이 김동문 집에서 여흥을 곁들인 모임을 가졌다.

이날 메뉴는 랍스터와 왕새우, 갈비 등 ‘딜럭스’ 식단으로 꾸며졌다. 동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떻게 매번 이렇게...’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불발,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모인 동문들은 대부분 ‘이목회’ 회원들이다. 매달 2(이)번째 목요일 만나 골프를 즐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골프가 끝나면 선배들이 저녁식사에 초대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다.

“진짜 문리대 출신들은 서울대를 졸업했다는 말을 안 해요. 그냥 문리대 나왔다고 하지. 문리대가 곧 서울대학이니까요.” 김상찬(지질학과 65) 동문의 익살에 요란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와인을 곁들인 식사가 끝나자 부부애



‘이목회’ 만찬에 앞서 참석 동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순길 동문 자택에서 열린 모임에는 30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문리과 대학 동창회 주관으로 열린 가을 야유회. 최고령 53학번에서부터 최연소 90학번에 이르기까지 모두 40여 명이 모였다.



이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면 경비는 물론 꽤나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할 터. 김동문은 그러나 오히려 찾아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바로 동문들 간의 우정이네요.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기쁜지... 정말 엔돌핀이 솟는다고요.”

참석 동문들 중 최고참은 이영일(정치학과 53) 동문. 건강이 안 좋은데도 이 모임만큼은 빠질 수 없다며 부부동반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이 동문은 남가주공인회계사(CPA)협회 초대회장. 한인 커뮤니티의 올드타이머다. “내년에 저희 집으로 초대할게요. 우리 풀파티 해요.”

이날 모임의 막내는 주준희(외교학과 72) 동문. 칠순을 앞둔 나이인데도 여전히 ‘최연소’ 타이틀을 못벗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서 딸네집을 방문 중인 이근수(사학과 65) 동문도 모임에 나와 어울렸다.

당초 한국서 김종섭 총동창회장도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LA공항에

와 관련한 ‘담론’이 이어져 한바탕 웃음을 안겼다. 김순길 동문의 부인 티나 여사는 남편에게 바치는 헌시 ‘당신의 씨줄이 되어’를 낭송하는 도중 울먹거리 좌중을 숙연케했다. “우리의 남은 날도/ 당신의 날줄에 씨줄이 되어/ 우리 아름답게 엮어가요.” 여기저기서 응원의 박수가 쏟아졌다.

이날 4시에 시작한 모임은 밤 11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한달 후에 꼭 다시 만나자는 말과 함께.

한편 앞서 지난 10월 29일에는 남가주 문리과대학 동창회(회장 이경희·인문대 83) 주관으로 피크닉 행사가 열렸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3년만에 열린 첫 대면행사다.

이날 부에나파크의 램프 클락 공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최고령 53학번에서부터 90학번에 이르기까지 40여 명이 동문이 참석했다.

서울대학에서 문리과대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대와 인문대, 자연대 3개 단과대학이 문리과 대학 이름으로 계속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화제의 책 아, 문리대!1

“자유와 토론, 낭만과 다양성을 꽃피웠던 시절”

서울대 ‘문리과 대학’이라는 이름은 소멸되었다. 하지만 과거 동송동 문리대 캠퍼스에 차고 넘치던 ‘자유와 토론, 낭만과 다양성’의 세찬 기류는 관악 캠퍼스의 어느 자락에서도 연면히 이어져 오고있지않을까?

최근 현대사기록연구원 이사장 송철원 동문(사진)은 ‘아, 문리대! 1’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했다.

1961~63년까지 문리대의 학생운동과 학창 에피소드를 사실적으로 엮어 제1권으로 내놓았다.

1961년부터 문리대가 서울대 종합캠퍼스계획에 따라 1975년 관악캠퍼스로 옮겨올 때까지의 문리대 시절 15년을 시리즈로 기술할 계획인데, 이번에 첫 권을 내놓은 것이다.

팔순을 넘긴 저자는 60여년 전 문리대 학창시절 직접 겪은 사실은 물론 김도현(정치61-11)과 같은 동료들이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던 각종 자료와 증언, 당시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여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1권에는 선배들의 회상과 기록을 통해 모교의 1950년대 부산피난시절과 환도 후 문리대의 모습까지도 담고 있어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나는 선배들이 선도하는 침묵시위 행렬뒤쪽에서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날 침묵시위는 1년 전 (4·19민주혁명) 4월 19일 문리대 데모대가 아홉군데의 경찰저지선을 돌파하여 경무대(현 청와대)입구에 도달해 경찰의 총격을 받을 때까지의 코스를 행진한 후 문리대로 복귀함으로써 끝났다...”

문리대 800여 명의 학생들은 독재와 불의에 항거한 1년 전 이날을 상기하면서 저녁에는 강당에서 술과 노래와 가창무도 등으로 카니발을 열어 젊음을 구가했다.

당시 문리대는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관련 학과와 의예과·치의예과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야말로 학문적 다양성이 넘쳐났다.

문리대생들은 너나 할 것없이 ‘문사철(문학, 사학, 철학)’을 자연스럽게 접 하면서 나름대로 지적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동송동 문리대의 모습과 주변의 학림다방, 중국음식점 진아춘, 쌍과부집에 얽힌 사연과 ‘사고친애기’들이 배꼽을 쥐게 한다.

친구 하숙집을 순회하는 ‘칫솔부대’들, 교실책상 위나 교정 벤치 등에서 ‘노숙’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책 말미 에필로그는 저자와 동기인 김승웅(외교61-67)의 글로 대신했다.

“문리대는 지금 없다. 문리대라는 건물도 없고, 문리대라는 이름 자체도 소멸되었다... 내가 문리대를 그리워하는 것은 소멸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지금도 어찌나 출신대학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저 문리대를 졸업했다고만 한다. 서울대 문리대라고는 웬만해서 말하지 않는다. 문리대라는 단어 자체에 취해 살았기 때문이었다...”

이경형

(문리대 66·총동창신문 편집인)



아, 문리대!1
송철원
정치 61-65
현대사기록연구원 이사장

서울예고 출신 음대 동문 송년 연주회, 12월 22일

서울예술고등학교 송년 만찬 및 음악회가 오는 12월 22일(목) 오후 4시 30분 LA한인타운의 아로마 연회장에서 열린다.

서울예고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손영아(음대 85) 동문은 “내년 모교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위한 기금마련 행사의 일환으로 송년회를 개최한다”며 “많은

서울대 동문들이 예고 출신인 만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승현(음대 04) 동문의 부군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장성을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 최희선(음대 92), 첼리스트 김원선(음대 04) 동문 등이 출연, 격조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문의: (951) 541-3188

시카고 관악클럽 정기모임 ‘성황’ ‘자녀와 소통’ 주제 … 텍사스에서조차 참여 식사위주에서 탈피, 자녀양육 등 경험 나눠

시카고 관악클럽이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198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학번을 망라하는 관악클럽은 시카고 서울대 동문회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11월6일 시카고 북쪽 서버브에 있는 글렌뷰 ‘구과 스튜디오’(대표 김수현·생과대 98)에서 열린 행사에는 관악클럽 회원 16명과 가족 27명 그리고 동창회 임원 4명 등 모두 49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부는 친교와 사진 촬영의 시간을 가졌고 2부는 ‘자녀와 소통’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 3부에서는 함께 식사도 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 미국 생활 및 자녀양육 경험을 나누고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형식으로서 단순 식사가 위주였던 기존 관악클럽 정기모임과 차별화됐다는 평가다.

특히 직장 및 육아로 바쁜 30~40대 동문들이 평소 궁금했던 점을 묻는 등 진행에 적극 참여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패널로 참여한 동문들은 대체로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승우(사회대 87) 동문은 “우리들과는 세대와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이에게 부모가 원하는 진로를 요구해선 안 된다”며 “아이가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든 옆에서 지지해 주는 친구 같은 부모가 돼야 성인이 된 2세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남미 파라과이에서 미국으로 재이민을 온 황찬주(인문대 84) 동문 역시 자율성을 강조하며 부모의 욕심을 강제하기보다 자녀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 줌 어플리케이션으로 원격 참여한 조현아(사범대 88)·신태수(의대 88) 부부 동문은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것을 주문했다.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학교 관련 행사를 거르지 않았고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등의 과정이 교육적인 성취는 물론 정서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자녀 학업 관련 구체적인 조언도 나왔

다. 교육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훈태(사회대 84) 동문은 “진로와 관련해선 자녀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게 맞다”면서도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아이에게 모든 걸 맡겨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동문은 자녀가 입학이 어려운 명문대를 목표로 할 경우 8~9학년부터 부모가 성적표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고, 다양한 교내 활동을 통해 진로 관련 적성을 파악해야 하며, 악기와 운동 중 굳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미국 문

부모 욕심보단 자녀의사가 중요 스포츠와 연계 무술 배울 필요 8~9학년부터 성적표 신경 써야



자녀들의 자신감 배양 및 스포츠활동을 위해 유도를 소개하는 봉윤식 동문.



명문대 진학을 위하여 부모들은 자녀 성적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는 김훈태 동문.

그는 “특히 아이가 착할수록 부모에게 도움이 되려는 마음에 자기가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좌절하기 전에 아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부모가 파악하고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화 습득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봉윤식(사회대 96) 동문은 “체구가 작은 아시안들이 운동을 해봤자 타인종들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운을 뗀 뒤 “하지만 그럴수록 특히 남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으므로



‘구과’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동문들.

스포츠와 연계 가능한 무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녀들을 데리고 유도를 같이 한다는 봉 동문은 “상업적인 면모가 강한 일반 미국 도장이나 클럽과는 달리 일본계 도장은 회비가 저렴할뿐더러 엄한 에티켓도 배우게 된다”며 “유도는 미국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레슬링과 쉽게 연동되는 만큼 자신감 배양과 스포츠 활동을 모두 추구할 수 있는 일석 이조의 선택”이라고 전했다.

이날 모임에는 시카고 동창회 관계자들이 특별 초청되기도 했다. 김승주(간호대 69) 회장과 장기남(문리대 62) 전 임회장 부부, 황치룡(문리대 65) 부회장 부부, 이준수(공대 76) 총무가 참석해 축하인사를 건네고 관악클럽의 발전을 기원했다.

컨퍼런스 직전 본인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들은 활성화된 관악클럽이 전체 동문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향후 긴밀한 연계를 당부했다.

한편 행사장인 ‘구과’ 스튜디오에서는 참가 동문 회원 전원을 대상으로 \$150 상당의 개인 프로필 사진 내지 가족사진 서비스를 제공, 큰 호응을 얻었다.

동반 자녀들은 스튜디오에 비치된 셀프 사진기로 즉석촬영을 하거나 행사장에 마련된 영화를 감상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영상도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하여 이벤트 영상도 제작하였다.

이벤트 동영상: -> 클릭

<https://youtu.be/nZFKGEN4LLg>

취재=봉윤식(사회대 96)·사진=김수현(생과대 98)

원고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snuausa30@gmail.com 로 보내주십시오.



워싱턴(시애틀) 지부 영제너레이션(YG) 첫 행사인데도 20여 명이나 모여 ‘성공적’ 다음엔 80년대 학번까지 포함, 모임 확대



임현민
총무
공대 84

미주 동창회(회장 노명호 · 공대 61)의 적극적인 영제너레이션(YG) 지원으로 지난 10월 29일(토) 워싱턴(시애틀) 지부 최초의 YG 모임이 열렸다. 첫 행사인데도 20여 명이나 모여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한다. 그동안 조용했던 시애틀 지부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행사였다.

이승윤(공대 90) 동문이 주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었으며, 김응훈(공대 94), 양흥순(공대 94), 정은구(치대 92), 그리고 총무 임현민(공대 84) 동문도 카톡 단체톡방을 만들어 어떻게 할지 아이디어 토론하고, 숙제를 만들고, 줌 미팅을 3회가량 했다.

다들 낮에는 현업에서 일하는 나이이고 또한 자녀들의 활동이 있어 주말에도 힘들고 해서 회의는 주로 평일 늦은 저녁 시간에 했다.

다행인 것은, 시애틀 지부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 전에 만든 주소록이 있었고, 새로운 회원이 가입할 때마다 총무가 기록하여 놓은 것이 있어서, 수작업으로나마 YG 회원을 찾을 수 있었다.

YG 모임 대상이 될 동문 리스트를 만들고, 총무가 이메일을 YG 전원에게 보

냈지만, 첫 이메일에 사실 별 호응은 없었다.

80년대 학번은 이미 동창회에 활발히 참석하는 동문들이 꽤 있어서, 이번에는 90년대 이후 학번 YG로 1차 모임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명단을 파악해 보니 40여 명이나 됐다.

한사람 당 10여 명을 할당해 직접 접촉하기로 하고, 한사람 한사람 전화와 텍스트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보내서 연락을 시도하였다.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전화를 건다는 것도, 또 받는다는 것도 사실 겁연쩍은 일이었기는 했지만, 이번



임현민 총무 자택에서 열린 YG 모임. 첫 행사인데도 20여 명이나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지 지금도 기억이 새롭다.

모임 장소는 총무 집에서 하기로 하고 와인과 안주도 총무가 제공하기로 했다. 점심 식사는 ‘투고’로 간단한 도시락을 서너가지 메뉴로 주문하였으며, 토요일 점심에 두어시간가량 짧은 모임을 하는 것이었기에, 식사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행사진행이 수월했던 것 같다.

이날 일정을 시간대별로 소개한다.

▲10월29일(토) 12시 30분 도착

▲1:00~1:30:

와인 및 각자 소개(30초~1분)

▲1:30~2:00: 점심식사와 함께 영제

한국서 태어나 서울대를 다녔고, 이곳 시애틀에 오게 되었다는 점으로 는 다같이 똑같은 길을 걸어온 비슷한 인생, 머나먼 이국땅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며, 농담을 나누며,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기분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만나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서로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니, 가까운 시일내에 더 많은 친구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뒤로 한채 모임을 마무리했다. 다음에는 80년대 학번까지 포함해 모임을 좀더 크게 할 예정이다.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다.

▲권형석(자연대 94, 마이크로소프트) ▲김대현(자연대 99, 워싱턴대 교수) ▲김수영(농생대 93, CPA) ▲김용배(공대 97, Meta/FB) ▲김응훈(공대 94,

EchoNous 초음파 진단기기) ▲류지수(사범대 01, 교육청) ▲서연진(공대 93, 교육청) ▲양흥순(공대 94, 쿠팡) ▲이경철(약대 95, 약사) ▲이동훈(인문대 95, SPU 교수) ▲이상민(공대 98, Moloco) ▲이승윤(공대 90, Unilab Hub) ▲이제성(공대 95, 구글) ▲이춘우(자연대 98, Redfox 게임회사) ▲전규창(공대 90, Point Fintech), ▲정은구(치대 92, 치과의사) ▲한의리(자연대 98, 워싱턴대 Bio Research) ▲홍세정(자연대 98, 내과의사) ▲이명자 회장(간호대 74, 내과의사) ▲임현민 총무(공대 84, 마이크로소프트) ▲정태환 회계(공대 88, 마이크로소프트).

걸어온 길은 달라도 ‘동문’으로 하나돼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기분좋은 하루 점심식사는 투고, 총무가 와인 안주 제공

모임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니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단순히 동문이라는 연결고리 하나로 연락을 취했는데 전화 등으로 직접 연결된 사람들은 다행히 반갑게 맞아주었다. 몇 사람은 번호가 아예 안됐고, 개중에는 타주로 이사를 간 사람도 있었다.

난생 처음 보는 사이였으나 다들 금세 친해지고, 또 그동안 살아온 본인 소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얼마나 재밌었는

너레이션 참여독려와 본인 이야기 등/대화시간

▲2:00~2:55: 자유로운 대화, 친구 사귀기 및 여흥

▲2:55~3:00: 단체기념사진 촬영

당일 찍은 사진을 다시 열어 보니, 영화에나 나올 법한 유쾌한 장면처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깔깔깔 웃으며, 재미있었고, 분위기도 참 좋았다.

다들 걸어온 길은 다른 인생이지만,

동창회비 납부하시면 이런 혜택들이 ...

- ▲ 매월 동창회보 우송
- ▲ 서울대 병원 종합건강검진 10% 할인
- ▲ 한국의 SNU 베리타스몰 이용(각종 유명 브랜드 할인가격으로 구매)
- ▲ 동창회가 주관하는 각종 공연 초청 등.

미주 동창회는 동문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문님의 진심어린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동창회 활성화 및 동창회보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학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원 등에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국의 총동창회와 연계해 동문님이 더 많은 베니핏을 받으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회비는 동창회보에 별첨한 봉투에 넣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회비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창회 사무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동창회는 국세청(IRS)에 비영리기관(501c3)으로 등록돼 있어 회비나 후원금 등은 모두 세금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213) 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박 변의 영화 내멋대로 보기

레옹(Leon: The Professional) 부모없는 소녀와 고지식한 킬러의 복수극

주인공 레옹은 이탈리아 혈통의 살인 청부업자. 그는 배운 것은 없다. 글도 못 읽는다. 영어가 외국어라 그런지 말도 어눌하다. 하루하루의 삶도 지극히 단순하다. 술도 안 마시고 우유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화초를 가꾼다. 그러나 살인과 살인 현장에서 빠져 나가는 기술 하나만큼은 거의 완벽하다. 그런데,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 청부업자에게도 나름대로의 도덕률은 있으니 그는 여자와 아이는 죽이지 않는다.

이런 레옹에게 12살난 마틸다라는 여자애가 나타난다. 같은 층 아파트에 사는 마틸다의 가족 전부가 부패한 마약 단속반 반장 노먼(Gary Oldman 분)에게 끔찍하게 죽는다. 이 역 역시 Gary Oldman은 너무 잘해낸다. 말쑥한 옷 맵시하고는 달리 가증스런 사이코패스인데, 난 이 배우와 Jack Nicholson을 보면 먼저 기분이 나빠진다.

식품을 사기 위해 나와 있던 마틸다는 사태를 깨닫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인양 그대로 레옹의 아파트로 향해 죽음을 피한다. 그런데 이 마틸다는 한마디로 일진회 회원에 딱 어울리는 불량소녀. 마틸다는 담배를 피워대고, 학교는 안 나간지 벌써 2주일이 된, 톱 까진 소녀다.

이 역을 실제 12살이었던 어린 Natalie Portman이 하는데, 똑똑함이 흐르는 얼굴에 예쁘기까지 하다. 그녀는 외모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똑똑해서 하버드 대학을 다녔단다.

레옹은 원치않게 마틸다의 보호자가 되는데, 둘 사이에는 아버지와 딸 같은 정이 싹튼다. 어떤 유튜브에 보니, 레옹

과 마틸다가 한 침대에 누워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영화에서 그런 장면은 없고, 순전히 낚시여서 몹시 기분나빴던 생각이 난다.

흑자는 이 유튜버처럼 나이많은 남자

목에게 칼을 들이대고 협박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씩 헤치우는 방법이 정말 놀랍도록 관객의 예상을 비웃는다. 경찰들과 마약 단속반 손에서 벗어나는 트릭도 너무 재미

를 입은 마틸다가 한 손에는 화분을, 한 손에는 백을 들고 간다. 레옹은 무기가 든 사각형의 낡은 가방과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걷는다.

의상 또한 괴상한데, 동그란 검은 모자, 길다란 검은 외투(무기들을 감추기에 좋아서), 안에는 그냥 하얀 라운드 넥 티셔츠, 8부 바지, 낡은 구두를 신은 레옹과 마틸다가 좋은 대조가 된다.

뤽 베송은 오락 액션 영화에 관한 한 천재인듯 싶다. 뤽 베송이 나오기 전까지 나는 최고의 오락 영화 감독이라고 하면 스티븐 스필버그를 꼽았었다. 그런데, 뤽 베송의 연이은 히트 작품들을 보고 나서 이제는 뤽 베송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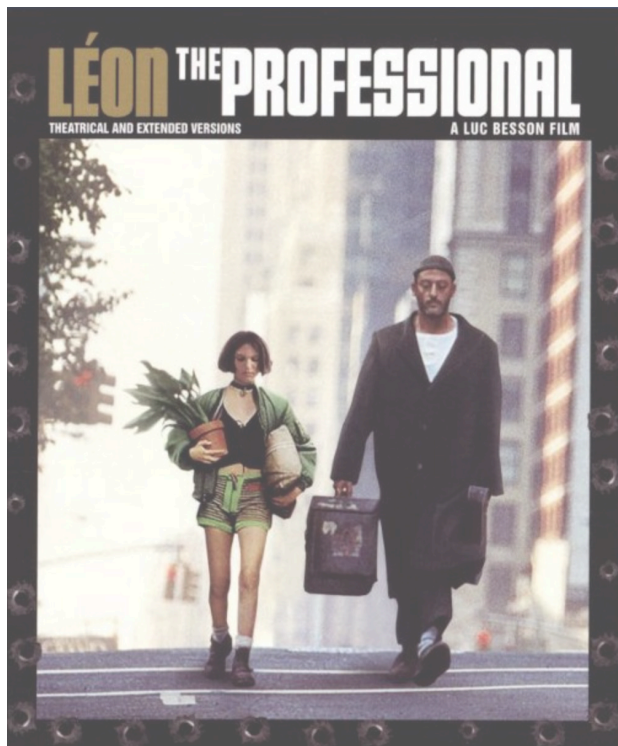
기발한 아이디어와 반전, 허를 내두르게 하는 과감한 액션, 보고 즐기기에 모자람이 없다. La Femme Nikita(1990), Taken(2008),

Lucy(2014), Anna (2019) 등이 그가 감독한 작품들. 다 재미있는 액션물들인데, 이 영화들 전부 보면서 감탄을 했다.

그리고, Taken같은 경우, 이 영화로 인해 Liam Neeson은 이후 60이 넘음에도 액션 스타가 된다.

사족으로, 뤽 베송이 액션 영화만 한 것은 아니다. 8등신 금발의, 도발적인 20대 여인의 모습을 한 천사가 나타나, 천하에 쓸모없는 인생 loser를 구원하는 영화도 있는데 Angel-a라고 하는 영화다. 이 지면을 통해서 몇년 전에 소개 드린 바가 있다.

박준창(인문대 79·변호사)



뉴욕 시내를 레옹과 마틸다가 걸어 가는 장면은 이 영화의 백미. 짧은 핫 팬츠를 입은 마틸다가 한 손에는 화분을, 한 손에는 백을 들고 간다. 레옹은 무기가 든 사각형의 낡은 가방과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걷는다.

액션영화의 천재 뤽 베송 감독 작품 기발한 아이디어와 예상 뒤엎는 반전 나탈리 포트만의 마틸다 연기 '압권'

와 어린 여자와의 성적 관계를 암시한다고 한다.

그리고, 톱 까진 마틸다는 레옹이 자신의 연인이라고 떠돌고 다니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런 해석을 하고 싶지 않다. 마틸다는 그냥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레옹을 좋아할 뿐이라고 믿고 싶다.

영화는 너무 재미있다. 영화 초반부 갱 조직의 경호원들을 다 제압하고, 두

있다. 이 모두 감독 뤽 베송의 연출력이 돋보이는 장면들.

레옹과 마틸다의 티격태격 장면도 좋은데, 마틸다의 버릇이 말끝마다 OK, OK 하는 것이다. 참다 못한 레옹이 OK 하지 말라고 하는데 ("Don't say OK all the time, OK?"), 안 하겠다고 하는 마틸다의 대답 또한 OK다.

뉴욕 시내를 레옹과 마틸다가 걸어 가는 장면은 이 영화의 백미. 짧은 핫 팬츠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제 18대 회장 후보추천 공고 (2025.7.1. ~ 2027.6.30)

서울대 미주 동창회는 미주 사회에서 활동하는 동문 회원 중 미주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하실 차차기 회장(제18대 미주 동창회장 · 2025.7.1. ~ 2027.6.30) 후보자 추천을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정관 및 인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미주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한 훌륭한 후보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직전 회장, 현 회장, 차기회장 지역은 제외합니다.

이사회원

위원장 신응남
646-523-9606

노명호 회장
626-991-4457

이상강 차기회장
918-616-3386

정정욱
뉴잉글랜드
401-556-5501

최경선
북가주
408-621-8080

박상근
D.C.
703-447-8175

황치용
시카고
224-334-1224

제 18대 회장
(2025.7.1 ~ 2027.6.30)
선거일정 및 근거규정

선거일정

근거규정

- 2022년 12월 31일 차차기 회장 추천서 접수마감
- 인선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후보는 회보 등을 통해 출마 공약을 발표.
- 2023년 6월 제 32차 전국 평의원 정기총회에서 투표로 차차기 회장 선출.

- 근거규정: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정관 및 인선위원회 규정
- 차차기 회장 후보는 서울대 미주지역 동창회장을 역임했거나 동창회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동문가운데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회원으로 한다.

다음은 SNU이음장학생으로 선발돼 지난 6월말 남가주를 방문한 김도연·박용주 두 재학생의 방문수기다. 이음 장학생 15명은 동문 가정에 숙박하는 등 3주간을 머무르며 미국을 체험했다.

이음장학금은 학생들에게 해외견문의 기회를 제공해 국제적 인 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서울대 발전기금에서 운영하는 스칼라십이다. - 편집자.

이음 한 소설, LA 한 움큼



김도연
인문대 21

과거의 나는 ‘자유’가 텅 비어있는 스케치북에 마음껏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SNU 이음장학금’ 프로그램 이후,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은 그림을 보는 경험이 부족하면 빈 스케치북에 상상력을 펼칠 소재조차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세계가 다른 사람의 세계와 만날 때 비로소 미래를 더욱 풍성하게 그려 나갈 수 있다.

LA에서 내가 밟은 곳들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며 내가 더 다다워질 수 있도록 나의 스케치북을 채워줬다.

힙한 상점이 많기로 유명한 멜로즈 거리에서 처음 들어간 옷가게의 점원은 LA 사람답게 스몰 토크(small talk)를 걸었다.

패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원래 이렇게 짧은 옷을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은 내가 너무 더워서(I’m hot) 이런 옷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내가 “당신 말대로 정말 핫하네요!” (You are hot!) 하고 받아치자 엄청나게 웃었다. 그때의 그 유쾌한 분위기가 아직도 생생히 느껴진다.

LA의 상점을 구경할 때면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인의 가치관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옷에 맞춰 몸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LA의 의류점에서는 다양한 체형을 위한 광범위한 치수의 옷이 준비돼있고, 자기 사이즈를 찾을 수 있도록 점원이 세심하게 도와준다.

옷뿐만 아니라 LA의 거리를 걷다보면 “LA IS FOR EVERYONE” 문구의 벽보를 스타벅스만큼이나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런 인권 캠페인으로 대표되는 다양성의 가치를 일상 곳곳에서 포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인지 LA에서만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돼 핑크말기 무니 바지

나 형형색색 패치워크된 핸드 메이드 크롭탑처럼 내 개성을 담은 옷을 마음껏 즐겨 입을 수 있었다.

LA 여행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하루는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별을 감상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 대중교통이 끊긴 밤 10시에 핸드폰 배터리가 안되고 배터리는 3% 남은 상황에 직면했다.

그런데 고목 생화(枯木生花)라 하지 않던가. 나의 백마 탄 기사님은 ‘인싸’ 우버 기사님의 형태로 나를 구원하러 왔다.

숙소로 못돌아갈 뻔했다는 생각으로 간이 콩알만해진 나에게 우버 기사님은 설새없이 밝은 에너지를 내뿜으며 말을 걸어왔다.

대학교를 가게된 이유처럼 한국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질문들과 “너처럼 긍정적이고 멋진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우버를 하게 됐다”라며 능청스레 건네주는 칭찬, 그리고 내가 말하는 족족 뺑뺑터져 알 수 없는 웃음 포인트는 최고의 우버 경험을 선사해줬다.

기사님도 재미있었는지 대화를 계속 이어가자며 연락처를 교환했고 다음에는 시내에 있는 ‘The Last Bookstore’ 서점에서 만나자는 약속도 했다.

서던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서울대 선배님들을 뵈는 것은 아주 귀중한 경험이었다. 자신이 하는 일에 강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며 내가 꿈꾸는 삶은 무엇일까 생각해볼게 됐다.

여유를 갖고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 충분히 탐색하는 과정을 가지라는 진심어린 조언은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내 열정에 불을 지피었다.

이 외에도 라틴 동네 샌타아나에서 음료수를 사준 개구쟁이 경찰관, 짧은 스페인어로 어떻게든 주문하려는 내 모습을 보고 한바탕 웃은 단골 타고 트럭 직원들, 식스 플래그에서 플러팅을 걸어와 재미있는 ‘썰’을 만들어준 스케이터보이, 인생 첫 댄스클래스에서 똑딱이는 나를 갱생시키기 위해 ‘열일’한 짝꿍 댄서 언니, 매일같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심심하지 않게끔 말을 걸어준 멕시코 식품점의 경비 아저씨, 그랜드캐년 관광에서 진로와 인간관계 고민을 함께 나눈 정겨운 사람들이 나의 캘리포니아 여행을 다채롭게 만들어줬다.

내 스케치북의 한 장 한 장을 다채롭게 채워준 SNU 이음장학금 프로그램 가능성을 가늠케한 모든 분께 무한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

응원 속에서 배포를 키우다



박용주
사범대 20

2022년 여름은 나에게 특별한 시간이었다. 신생 장학제도인 ‘SNU 이음 장학금’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이다. SNU이음장학금은 해외에 방문해 견문을 넓힐 기회를 주는 장학금이다. 그렇게 나는 3학년 여름 방학에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에서 보낸 3주는 나의 그릇을 키우고 다음을 준비하는 발판이 됐다.

미국에 도착하고 첫 두 주는 LA에서, 마지막 일주일엔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냈다. LA에서 수많은 곳을 방문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였다. 디즈니랜드에서 이야기의 힘 그리고 최고를 만들어 내는 정신을 배웠다. 어린 시절 나는 대사를 외울 정도로 디즈니 영화를 좋아했다.

디즈니랜드의 각 구역은 마치 그 영화에 들어간 것처럼 영화의 이야기가 충실하게 반영돼 있었다. 놀이기구 대기 라인의 소품 하나하나, 놀이기구의 이야기까지 영화의 주제의식을 섬세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면 영화 ‘카’를 주제로 한 놀이기구는 정비소를 돌면서 자동차 경주를 준비하고 경주를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카’영역에는 화분과 나무의 형태가 타이어 모양처럼 돼 있다. 세밀하게 세계관을 구현해 디즈니랜드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배경이 궁금해졌다.

디즈니랜드를 놀이동산 이상으로 생각하는 비전, 각 구성원의 열정적인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었을까. 자원, 부, 자신이 최고라는 자신감으로 상한선을 두지 않고 노력해 세계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는 자세를 배우고 싶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연합전공 인 공지능을 이수중인 나의 전공을 살려 동선을 계획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스탠퍼드대에 방문해서 ‘HAI’ (Hu-

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분야를 새롭게 알게 된 것과 ‘WEB3’ 모임에 참여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의 담론을 접할 수 있었다.

미국 여행만큼이나 SNU이음장학생, 미국에 계신 선배님과 이어지는 것이 의미 있었다. 낮에는 각자 LA의 곳곳을 누비다가 밤이 되면 SNU이음장학생 15명 친구들과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미국에 처음 왔다는 설렘을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배경과 전공이 있으니 이야기할 거리가 끊이지를 않았다. 이렇게 모인 SNU이음장학생 친구들과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종종 모임을 가지고 있다.

LA에서 지내는 동안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자리잡은 선배님을 뵈었다. 감사하다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SNU이음장학생을 예뻐하고 응원해주셨다. 영어는 도전적인 환경에 부딪히면서 배우면 된다는 말, SNU 이음장학금이라는 기회를 잡아 미국에 온 것이 기특하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과 호의, 친절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이 그 어느때보다도 잘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나도 성장해서 누군가에게 이런 선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서울대 후배라는 것만으로 마음 가득히 응원의 말씀을 전하면서 미국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한 마음뿐이다.

그렇게 미국에서 보낸 3주가 지나고, 서울로 돌아와 다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번 미국여행이 끝나고 내가 무엇이 달라졌느냐 묻는다면, 나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답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배포가 커졌다.

선배님과 대화하면서 조금해하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자세를 배웠고, 여러 분야를 접하며 미리 제한을 두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를 배웠다.

앞으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겁없이 도전하고 싶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배님들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내가 내편이 돼 나를 변호하고 복돋아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싶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킬 기회를 주신 SNU이음장학금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



이정아
Mrs. 이병성
공대 74

최근 팀 페리스(Timothy Ferris)의 책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를 읽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의하며 성공적인 작가와 투자자의 길을 걸어온 페리스는 '우리 시대 가장 혁신적인 아이콘'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는 페이스북, 알리바바, 우버 등 세계 최고 혁신기업의 초기 투자자이자 컨설턴트로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그가 쓴 책은 모두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자신이 직접 썼다기 보다는 '팀 페리스 쇼'에 출연했던 유명인사들을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를 하여 그걸 요약 정리한 책이다. 유발 하라리, 스티븐 핑커, 크리스 앤더슨, 톰 피터스 등 하

버드대 석학부터 글로벌 CEO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 가장 위대한 인생교사 133명의 지혜와 통찰을 52개로 요약한 현대판 잠언이라 할 수 있겠다.

2018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2018년 아마존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 1위, 팟캐스트 비즈니스 분야 최초 2억 회 다운로드 돌파, 이렇게 요란한 광고만큼이나 현란한 말들의 성찬이 펼쳐진 책이었다. 나는 그 여러 멘토들의 이야기 중 가장 젊은 드류 휴스턴의 이야기에 감동을 넘어선 충격을 받았다.

드롭박스(Dropbox)의 창업자 드류 휴스턴은 1983년 출생의 젊은 기업가다. 2005년 MIT를 졸업한 그는 2013년 모교 졸업식에 초청 연사로 초대받았다. 유명한 연설이었다는데 나는 이 책을 통해 이제서야 접했다.

MIT 연설에서 그는 '인생은 겨우 30,000일인데,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했다. 그러면서 졸업생들에게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이미 8,000일이나 썼다"라고 말

했다.

그는 예전에 쓸데없는 걱정을 자주 하곤 했는데 어느날 그를 냉정하게 만든 순간을 떠올렸다.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하고 나서 어느날 밤잠이 오지 않자 컴퓨터를 켜고 뉴스를 보다가 '사람의 인생은 겨우 30,000일 뿐이다'는 기사를 읽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계산기로 그의 나이인 24에 365를 곱하고서는 이미 인생의 9,000일이나 썼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 그는 '내가 뭐 하느라 이 시간을 다 썼지?'라며 반성하듯 자신에게 되물었다고 한다.

헐! 어찌면 좋아. 책 읽고 말고 계산해 보니 나는 2만 2,000일을 훌쩍 넘기고 있지 않은가. 최근 100년 가까이 사신 김형석 교수님 책에서 요즘엔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한다기에 아직은 젊다고 자신했었다. 죽기까지 아직 멀었다고 안심했다. 그러나 이게 뭔가? 드류 휴스턴은 24세에 일찌기 깨달은 걸 60넘어 깨닫다니 잠이 오질 않았다. 도대체 뭘 하느라 이 많은 날들을 허비했던 말인가. 이런 류의 자기계발서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다. 빌려간 책을 교회 도서관에 반납하는 분이 추천하셔서 무심히 집어들고 온 책에서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하루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

여러 멘토들의 조언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었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마라. 성공을 위해 너무 애쓰지 마라. 성공에 초점을 맞추면 맞춤수록 그것에서 더욱 더 멀어질 뿐이다. 성공이나 행복은 의도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것에 무관심함으로써 그것이 저절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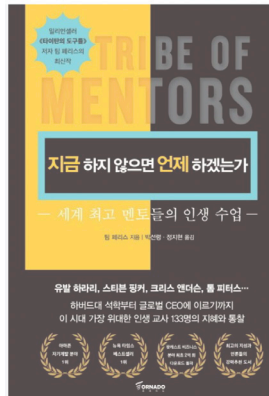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 좋은 날을 하나씩 쌓아 좋은 인생을 만들어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충분하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흔히 듣던 이야기들이지만 7,000일(아마도 늘 아픈 나에겐 그보다 덜 남았지 싶다)도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인지 무척 와 닿았다. 시간을 세월을 허투루 쓰지 말아야지 결심했다. 매일 매일이 마지막이듯 간절하고 진실되게 살 이유인 것이다.

우리 앞에 과연 몇날이나 남았을까?

우리 앞에 과연 몇날이나 남았을까



11월의 이야기



박찬호
공대 58

동백이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는 11월입니다. 한동안 즐겨 먹었던 한국 포도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니 이젠 탐스러운 감이 수퍼마켓 진열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늦가을의 찬 서리를 맞으며 단감을 내느라 애써준 우리 감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랜 전의 일입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조그마한 집을 하나 장만해 이사를 한 후 몇달이 지났을까. 꽤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목직한 그로서리 봉투를 건네주시면서 같은 동네에 이사온 것을 축하하고 싶어 집에서 탄 감을 가져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미국이란 나라는 이런 곳 이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그후부터 매년 이맘때면 꼭 감

을 갖다 주셨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혹시 감이 아직 덜 익어서 안오시지 않나 할 아버지가 사시는 앞집 담 넘어로 감들이 얼마나 익었나 정탐을 하기도 했습니다.

몇년이 지났을까. 이맘때면 예외없이 감을 갖다 주시던 할아버지가 오시질 않았습니다. 혹시 이사를 가셨을까, 몸이 불편하실까 걱정도 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매년 감 얻어 먹고 우리는 겨우 애플파이 한 번 사다드린 것 밖에 없었던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인정받고 친절하셨던 할아버지를 다시 뵈 수 없게 된 것이 무척 슬펐습니다. 좀처럼 울지 않는 집사람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척이나 감을 좋아했던 집사람을 생각해서 또 첫 아이도 많이 자라 과일도 먹을 수 있게 되어 얼마 후 조그마한 감나무를 하나 사서 뒷뜰에 심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무를 심은 탓인지 몇년 소

식이 없더니 한 해는 갑자기 감꽃의 새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물도 더주고 비료도 주고 정성도 주고, 이제 몇달 후면 우리 세가족 감 따 먹을 수 있겠다 희망에 벅찼습니다.

하지만 생각지 않았던 불상사가 찾아왔습니다. 감들이 골프공 크기나 되었을까, 온 동네 다람쥐 새끼들은 다 찾아와 우리 가족 희망의 감들을 먹어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다 익기도 전인 감을 딱 떼어다가 나무가지에 얹아 감아먹고 있는 꼴을 보고 있으면 너무 밍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해 두해 피해를 당한 후 묘안을 찾았습니다. 가짜 올빼미를 나무에 걸어보고, 바람 종도 걸어보고, 하다 못해 화장실 휴지를 풀어 나무가지에 감아보고, 모든 수단을 다 써보았지만 다람쥐의 명석한 술수에는 당할 재주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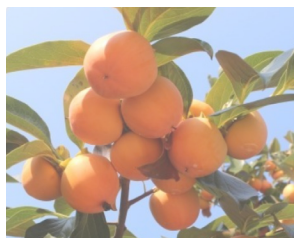
이제 마지막 수단은 단 한가지.

우리가족 세명이 적어도 하나씩은 먹고 싶은 생각에 가는 철망을 사다가 제일 이쁘장한 감 세개를 골라 싸두었습니다.

다. 얼마가 지나니 대성공, 노랗게 변해가는 나무잎속에 터질 듯 탐스러운 감 세개가 철망 속에서 웅자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물값, 비료값, 내 정성값을 생각하면 밀지는 장사였지만 일년에 한 번 우리 가족 세명이 하나씩 먹는 감이 그렇게 맛있을 수 없었습니다. 몇년 후에는 우리 둘째놈 뒤통까지 감네개를 철망에 싸두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정성과 사랑의 감이었습니다.

사십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감나무도 사십대가 되니 기력이 부족한지 열매도 시원치 않고, 감나무 주인은 벌써 팔순이 넘었습니다. 서글픈 마음 없지 않습니다. 동백꽃은 꿀이 많아 새들이 찾아온다는데 우리에게겐 꿀 대신 사랑과 우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인생 팔십은 한해의 11월과 같은 것. 두툼했던 새해의 달력이 이제 얇팍한 두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11월에 피는 꽃도 향기는 있다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지광철
사회과학대 88

갑자기 운전석 앞쪽 타이어에 너트가 박혔다. 전날 새벽 차 바퀴에서 펠릭펠릭 하는 소리가 났는데 신문지나 낙엽 정도로 무시하고 달린 게 화근이었다. 너트를 돌려 빼니 바람이 피쉬쉬~ 오 마이 갓. 교체각이란다. 차 받은 지 딱 일주일. 400달러를 결제하고 나오니 속이 쓰렸다. 액땀했다고 생각했다. 큰 사고 안 나고 돈으로 막을 수 있었으니.

올해 4월 29일 워싱턴 디씨로 입국할 때 가장 큰 숙제가 자동차였다. 술한 시행착오 끝에 6월 말이 되어서야 차를 받았으니 정말 시간을 많이 쓴 셈이었다.

막상 처음 도착해서 할 일이 많았다. 숙소, बैं킹, 운전면허, 각종

등록 등. 그 중에서도 자동차는 중고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난감했다. 1만 9,000달러에 산 2019년형 파사트를 2년 쓰고 떠나면서 2만2,000달러를 받아 갔으니, 말 다한 거다. 골프백이 4개나 들어가는 가성비 짱이라며 특별히 배려해 2만1,800달러만 달란다. 헤헤, 제가 원하는 색상이 아니라서요. 정중히 거절했다. 내가 봉이나? 차라리 새 차를 사자! 도요타, 혼다 매장에 문의했다. 헐! MSRP에 7,000달러를 더 얹으라 한다. 다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중고차로 눈을 돌렸다. Carvana.com과 Carmax.com을 소개받았다. 두 개 사이트를 비교 분석하니 제법 쓸 만한 녀석들이 눈에 띄었다. 5월 한 달 내내 인터넷에서 차만 검색했다.

여차피 수요 많은 캠리, 어코드 비싸게 사느니 고급이면서 수요층이 한정된 애들 좀 보자. 벤츠, BMW, 아우디. 이런 친구들을 보기로 했다. Carvana 가격이 좋아 보여 최종 10대 후보 중 E class 벤츠 중고를 찍었다. “디씨는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사륜이 필요합니다.” 현자인 조언을 참고하여 4-matic으로 했다. 거래가 마무리되나 싶었다. 보험도 사고, 잔고도 마련하고. 웬걸~ 전화가 와서 버지니아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판매가 안된

‘가성비 짱’ 중고차?

다고 한다. What the hell? 국제면허는 안된다는. 운전과 직접 관련된 보험도 있는데, 미국 면허 없이는 차를 못 산다는 말에 현타가 왔다. Carvana 포기.

이제 Carmax에 찾아보니 원하는 차가 아이오와에 있단다. 여기서 8시간 거리, 운반에 200달러 소요. 이동에 default로



들어가는 비용이라 non-refundable. 까짓 거 한번 해 보자. 과감해졌다. 딜러가 연락와서 국제면허도 된다고 한다. 그래야지! 이 친구들은 정신이 제대로 박혔군. 아뿔싸, 이번에는 일주일도 되어도 차 운반이 시작되지 않는다. 매일 체크해도 급한 성격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고른 차량이 겨울철 중요한 엉파(좌석 난방장치)가 안되는 거였다. Carmax도 포기.

우연히 친구 조언으로 검색한 타이슨스

코너 중고 매장에 맘에 드는 녀석이 나와서 직접 찾았다. 시운전을 해 보고, 조건을 살폈다. 딜러십 Certified에 2년간 워런티.

차 구입 후 두 달 만에 뒤 범퍼가 충격을 받아 오른 쪽 뒤에서 후진기어만 넣으면 false alarm이 났다. 수리하는 데 430달러. 애물단지다. 그래도 이 녀석 입양 후에 미국 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 서울대 동문 모임은 연대, 고대에 비해 미약하다. 미국에서는 엄청 활발하다. 왜 일까? 초창기부터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활동을 펼쳐 온 역량있는 동문들이 많았고 경쟁상대가 국내가 아니라 전 세계였으니 그 배경이 이해가 간다.

기동성을 확보한 뒤에 동문 모임을 소개받고, 독서, 골프, 바둑, 탕고 등 동호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동호회는 열정있는 동문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활동이라 자발적인 만큼 더 끈끈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동문회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기대해 본다.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보수건 진보건 이념은 달라도. 전쟁을 지지하건, 반대하건 상관없이. 연말이 가까워오면 크리스마스 캐럴처럼 흥얼대는 노래가 있다.

“멀리서 보면/ 세상은 푸르게 보이고/ 하얗게 눈 덮인 산이 보이죠/ 멀리서 보면/ 바다는 시냇물과 만나고/ 독수리가 훨훨 날아 오르죠.”

타이틀은 ‘멀리서 보면(From a Distance)’. 우주인들의 아침을 깨우는 ‘모닝콜’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우주선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언제나 항상 영원히 블루와 그린의 조화. 아무리 거칠고 지친 삶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감싸주는 곳이다. 멀리서 보면.

“멀리서 보면/ 세상은 하모니/ 곳곳에 메아리칩니다/ 그건 희망의 목소리/ 그건 평화의 목소리/ 모든 이들의 목소리죠.”

작곡·작사는 줄리 골드(Julie Gold). 동유럽 이민자의 딸로 태어난 그는 싱어송라이터의 꿈을 안고 뉴욕에 둥지를 튼다. 그러나 뉴욕커가 된다는 게 말처럼 쉬운가. 식당 웨이트레스 등 안해본 일이 거의 없다.

30회 생일을 맞는 날 부모님이 중고 피아노 한 대를 화물 택배로 보내줬다. 검고 흰 건반이 빛어낸 화음에서 희망이 묻어났고 꿈이 영글었다.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다. 그날 밤 불과 두어시간 만에.

“멀리서 보면/ 우린 충분히 가졌고/ 궁핍한 사람도 없지요/ 총도, 폭탄도, 질병도/ 굶주림도 없습니다/ 신이 우릴 지켜보고 있어요/ 신이 우릴 지켜보고 있어요/ 멀리서.”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베티 미들러(Bette Middler)다. 우선 노랫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하와이에서의 삶이 떠올랐던 것. 옆집 앞집 뒷집 주민들은 거의 모두 동양계였으나 미들러 가족은 이들이 배운 도움으로 가난을 잊고 살 수 있

‘멀리서 보면’ 감사할 것 투성이

었다.

“멀리서 보면/ 당신은 친구 같아요/ 우리가 비록 전쟁 중일지라도/ 멀리서 보면/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건지/ 멀리서 보면/ 조화가 있지요/ 그것은 이 땅 곳곳에 메아리칩니다.”

미들러의 앨범이 나온 건 공교롭게도 1991년이다. 걸프전이 일어난 때여서 노래는 공전의 히트를 쳤다. 단박에 빌보드 1위에 올라 거의 반년이나 차트를 점령하다시피 했다.

주디 폴린스와 영국의 리처드 클리프 등 글로벌 톱싱어들이 줄줄이 앨범을 냈으나 미들러는 시쳇말로 ‘넘사벽’이었다. 크게 유명하지 않은 가수였는데도.

꼭 옆집에 살고 있을 것만 같은 여성. 어찌면 ‘만남’의 가수 노사연과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나 싶다. 그런 외모의 미들러가 가슴 한 켠에 숨어있던 감성코드를 흔들어냈으니 좌파든 우파든 눈물을 흘릴 수밖에. 노래는 파병 군인들에게 위안이 됐고 용기를 줬다. 마치 군가처럼

불렀다니 그 인기를 가늠할만 할 터다.

바버러 박서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은 의회 연설에서 이 대목을 인용, 파병반대를 주장해 일약 전국구 스타가 됐다. 노래 덕분인지 그는 이듬해 상원의원에 선출돼 정치적 신분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

노래는 이렇게 끝난다. “희망에 희망을 싣고/ 사랑에 사랑을 담고/ 그건 모든 이들의 마음이지요/ 신이 우릴 지켜보고 있네요, 멀리서.”

듣다 보면 마치 가스펠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실제 북아일랜드에선 찬송가로 채택될 만큼 시들지 않는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가까이 보면 삶은 온통 혼란스럽고 흉하기 짝이 없는 것처럼 비춰진다. 그러나 뒤로 물러나 멀리서 보자. 감사해야 할 것 투성이 아닌가. 이만큼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도,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것도. 무엇보다 신이 우릴 지켜보고 있으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아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롬!

〈편집고문〉

효자정려문(孝子旌閭門)의 추억 세 자식들도 효성 지극 ... 조상 덕분에 복 많은 부모돼



김옥영
문리대 52

우리 부부는 지난해 결혼 60주년, 이른바 '회혼'을 맞았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효성이 지극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부러워하는 세 자식이 있다. 우리도 복 많은 부모라고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 그들의 미덕은 우연도 아니고 우리가 부모로서 의식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양육한 것도 아니고 다만 선조님에게서 물려받은 가문의 전통 덕택이라고 믿는다.

조선시대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질서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강조했다.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유교적 윤리를 권장하기 위해 충신·효자·열녀가 사는 마을 입구나 대문 앞에 붉은 문을 세워 표창하였는데, 효자의 경우는 '효자정려문'이라고 했다.

남편(장석주·의대 47)은 원당(元堂) 안동장씨(安東張氏)에 속한다. 가문의 영광과 전통은 그의 증조부되는 장의중(張宜中)의 효성에 기반을 둔다.

그 분의 효자정려각과 현판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다. 장의중(1821~1895)은 조선 말기인 철종·고종 때 효자로 이름난 인물로 그 지극한 효심이 조정에게까지 알려져 고종이 그의 사후인 1904년 정려각과 효자문을 하사하였다.

손가락 잘라 병구완

조선시대에는 고을의 선비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질고 효성이 지극한 이웃을 임금에게 상을 내려주시기를 고했던 제도가 있었다. 1903년 51명의 고양군 유생들이 고양군수에게 올린 단자(사대부가에서 청원할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관청에 올린 문서)에는 장의중의 효행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효자정려를 군수에게 청원하였다. 그 문서에 올린 중요한 사실은 어머니의 병구완을 위해서 자기 손가락을 잘라 헌혈했다는 보고였다고 한다.

우리는 60여 년을 미국에서 살면서 가끔 한국에 다니러간다. 생존하고 있는 형제 나 친지들은 이미 타계하고 없

나 여러 명의 조카, 조카딸, 조카 손자 손녀, 먼 친척들이 반겨준다.

갈 때마다 우리는 성묘하는 동시에 정려각을 방문한다. 결혼 후 처음 귀국한 때는 1976년이었는데 그 당시 정려각

형님은 그러나 이같은 제의를 포기하기로 결심하셨다. 부모님을 모셔야하는 장남의 책임이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는 것보다 더 중대하다는 의무감에서였다. 그 대신에 동생을 미국에 갈 수 있도록

부모 모시기 위해 유학 포기한 큰 아주버님 동생에 양보, '아메리칸 드림' 성취 도와줘 97세 남편, 어쩌면 마지막 고향방문 '성묘'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효자정려문. 붉은 현판에는 흰 글씨로 효자학생 장의중지려(孝子學生張宜中之閭)라고 새겨져 있다. '학생'은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의 존칭이다. 가운데 줄 중앙이 김옥영·장석주 동문 부부.

은 거의 폐허처럼 무너져가고 있어 보는 사람에게 애석한 마음을 느끼게 했었다. 벽에는 곰팡이가 지저분하게 덮혀져 있었고 창문 마다 찢어진 창호지가 앙상한 빈 창문둘레에서 나불거리고 붉은 현판은 색이 낡아 쓰인 글도 읽을 수 어렵게 흐릿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경제와 국가의 문화 보존 의식이 향상하면서 2012년 7월 22일 고양시의 향토문화재 제59호로 지정되고 시의 계획으로 다시 단정하게 본연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복원되었다.

조상을 모시는 산은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에 있다. 얼마 멀지 않는 거리에 고령 마지막 왕 공양왕 (1345-1394)의 능이 있고 그 입구 옆에 정려각이 있다. 이 정려각은 정면 2칸 규모로 효자문이 있고 붉은 현판에는 흰 글씨로 효자학생 장의중지려(孝子學生張宜中之閭)라고 새겨져 있다. '학생'은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의 존칭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다.

남편의 형님은 12살 위 장남이셨다. 일생을 부모님 모시고 지내셨다. 세브란스 대학, 지금은 연세 대학에서 미국 선교사 교수가 우수한 학생 형님을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 장학금과 모든 생활비를 보장해 유학하기를 추천했다.

주선해 주셨다. 남편은 형님의 은혜 덕택으로 미국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성취했다.

프린스턴대 유학 사양

미국에서 만나 결혼한 나도 시집살이하루도 안 해보고 일생을 살았고 동서만 고된 시집살이에 시달리셨다. 형님은 가끔 자기가 만약 프린스턴 대학에 유학 갔었더라면 어떤 다른 인생이 됐을까 하고 회포에 잠기셨다.

그런 말속에는 아쉬움과 후회도 포함됐음도 짐작 되나 부모님을 일평생 편하게 모셨다는 자부심이 더 깊었으리라 믿는다. 프린스턴 대학을 나온 이승만 대통령과 동문이 되었을 줄도 모른다면 서 눈웃음으로 농담도 하셨다.

호랑이 그림 취미

형님은 그림 그리기가 취미셨다. 특히 호랑이 그림을 많이 그리셨다. 왜 아버지는 호랑이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리느냐고 자식들이 묻자 형님은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셨다고 한다.

증조 할아버지가 중병을 앓고 계신 어머니를 위해 마을에 가서 약을 지어 가

지고 오는데 깊은 산속에서 호랑이와 맞섰다고 한다.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약을 못 잡수시면 돌아가실 것이니 목숨만 살려달라고 썩썩 빌었다. 호랑이는 그의 효성에 감동해서 스스로 사라졌다고 한다. 자식들은 그 이야기를 두고두고 즐기면서 자기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되풀이해 들려줬다.

남편도 효자 노릇은 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는 항상 몸이 약하셨고 병치레가 많았다고 한다. 학교 다닐 때도 버스 타는 돈을 아껴서 약값에 보태 드렸다고 한다. 여름 방학이 되면 늘 원당리 고향에 가고 싶었다고 한다. 가는 길에 한적한 공양왕릉이 있었고 그 고요한 자리에서 쉬고 있으면 매미 울어대는 소리를 들으면서 솔나무 밑에서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히고 피곤을 달랬다고 한다.

버스값 아끼려 반나절 걸어

서울서부터 그곳까지 가는데 걸어서 반나절 걸렸다고 한다. 버스 값을 아껴야 어머니를 도울 수 있다는 효성에서였다. 시골에 가면 친척 아주머니가 대청마루에 앉혀 놓고 갓 따온 김이 무럭무럭 나는 옥수수과 감자를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스러웠다고 한다.

몇 년 전 성묘 갔을 때 공양왕릉을 지나면서 웅장하고 수려하게 가꾸어져있어 한적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관광객이 법석거리는 등 옛 모습은 전혀 찾을 수가 없어 애석했다며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곧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의 97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는 찾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는 고향에 다니러 간다. 남편은 아직도 자기 발로 얼마든지 군세계 걸을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못해 같이 갈 수가 없다. 고향을 찾아 성묘를 하며 효자문도 방문할 것이다.

원당리(지금은 원당동)에는 아직도 농사를 짓는 친척이 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옥수수과 감자를 대접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강산은 이미 여러 번이나 바뀐 지금이다.

김옥영 동문은

1950년대 미국에 유학과 뉴욕에서 신경정신과 레지던트였던 장석주 동문을 만나 결혼했다. 장 동문은 뉴욕과 코네티컷 등지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활동했다. 김 동문은 영문번역가의 삶을 살며 한국문학을 미국사회에 알리는데 노력했다. 부부는 2006년 은퇴해 시애틀에서 살고 있다.

시카고 골든클럽의 뉴멕시코주 5박6일 여행기 이경화(공대 56) 동문과 반가운 만남 환대받아



윤봉수
간호대 69

수 십년이 지난 일이다. 뉴멕시코주의 앨버커키(Albuquerque)에서 온 편지를 받은 일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는 것은 발음하기도 힘든 그 이상한 지명 때문이다. 올 가을 드디어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65세 이상의 동문으로 구성된 시카고 골든 클럽에서는 매년 장거리여행을 하고 있다. 여행을 통해 동문들이 서로를 더 많이 알 수 있어 행사 중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해외 여행을 했으나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 올해는 국내여행을하기로 결정했다.

여행지를 물색하던 중, 회원들이 비교적 가보지 못했던 남부의 뉴멕시코 주를 여행지로 선정하게 됐다.

두 특별한 만남

이번 가을여행에는 특별한 두분과의 만남이 있었다.

미주 동창회보에 실린 시카고 골든클럽의 뉴멕시코 가을여행 소식을 보시고 이경화(공대 전자공학과 56) 선배께서 연락을 해 오셨다. 1969년 앨버커키로 유학와서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고 계신 분이다.

지역 한인사회에도 큰 공헌을 하신 분으로, 한인회장을 두 번 역임하셨고,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이곳 한인교회의 장로이시며, 뉴멕시코 교민의 소식과 뉴멕시코를 미주 한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격 월간지 ‘광야의 소리’ 편집을 맡고 계신다. 이번 만남에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은 선배님이 우리국민 애창곡인 ‘오빠생각’의 작사가인 최순애님과 ‘고향의 봄’ 작사가인 아동문학가 이원수님의 아드님이시란 것이다.

또 하나의 특별한 만남은 이번 여행의 가이드였다. 피터 김(김민순)은 이곳 갈릴리 장로교회의 담임목사이고 서울대 동문이다. 미시간주에서 3년 전 이곳으로 소명을 받고 오신 분으로, 작년에 뉴멕시코를 안내해 줄 가이드를 찾던 중 아리랑 여행사가 수소문 끝에 발굴해 낸 분이다.

첫날, 버스안에서 일정표를 나누어 주었는데 앞면은 5박6일의 일정, 뒷면은

천연색 뉴멕시코 지도였다. 우리 일행은 김 동문의 친절할 설명을 들으며 버스에서 매일 지도를 보면서 A 부터 Z까지 방문할 곳과 거쳐갈 곳의 지명에 대한 지식, 그리고 연관된 사건, 기업체, 이벤트, 음식점, 음식물, 특산물 등을 배울 수 있었다.

지리, 역사, 문화, 예술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예습, 복습을 통하여 진정한 시니어 학습이 이루어졌다. 학습이 반복되면서 마치 옛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다. 김 동문은 때로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와 간증으로

National Park)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규모(서울시 보다 더 크다)는 바다도 없는 이곳에 웬일로 사방을 둘러봐도 끝없는 흰 모래, 모래 둔덕이 파란 하늘과 춤추는 흰구름에 잇닿은 풍경은 이미 나의 뉴 멕시코에 대한 무지함을 놀라운 자연경관 앞에서 무릎 꿇게 하였다. 더 있고 싶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해야 했다.

리오그란데 강

Green and Red Chilli Peppers의



‘고향의 봄’ 이원수 원로 아동문학가의 장남 동문 가이드의 안내로 학창시절 돌아간 듯 칼스바드 동굴 · 화이트 샌드에 ‘경외감’ 느껴 65세 이상 동문들 매년 장거리 여행 떠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였을 뿐 아니라 종교와 역사, 철학도 두루 섭렵한 지식 세계의 가이드였다.

뉴멕시코 남단의 Carlsbad National Caverns는 110여개의 동굴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가장 큰 동굴인 The Big Room을 찾아갔다. 지하 755 피트를 순식간에 내려가 귀가 멍멍한 가운데 엘리베이터를 나와서 조금 걸어 들어가자, 그 웅장한 모습이 어둠속에서 서서히 드러났다. 6개의 풋볼구장이 들어간다는 이곳 공간은 위를 쳐다보니 마치 하늘을 보는 것 같이 천정이 안 보였다.

엄청난 크기의 ‘자이언트 돔’과 ‘트윈 돔’의 석순 기둥과 섬세한 고드름 모양의 다채로운 종유석이 헤아릴 수 없이 달려 있어 장관을 이루었다.

화이트 샌드 국립공원(White Sand

고장 Hatch의 한 선물가게에서 본 Wreath처럼 둥글게 만든 빨강고 파란 고추들의 화려한 색상과 조화, 주렁주렁 처마를 따라서 일정하게 묶어 늘어뜨린 고추다발들은 예쁜 크리스마스 장식물을 연상시키고, 편편한 지붕에 널어서 고추를 말리는 풍경은 한국의 가을 정취를 불러 일으켰다.

앨버커키에서는 Sandia peak(10,378 피트) 정상에 Tramway를 타고 올라갔다. 정상까지 무려 15분이나 걸렸다. 앞에서 보이는 산은 돌산으로 자칫 돌들이 굴러 떨어질 것만 같은데 트램을 타고 가파르게 올라가 보니 밑은 까마득한 절벽, 험곡이요,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을 상상케 하는 봉우리들이 수없이 아래로 보인다. 산 정상 가까이는 눈이 쌓여 있다. 생각해보라, 이 산은 백두산

보다 300미터쯤 더 높지 않은가!

Bandelier National Monument는 푸에블로 인디언들의 수천년 넘게 살았던 곳이다. 화산 작용으로 형성된 거대한 암산 그 자체다. 암산에 생긴 크고 작은 수 없는 구멍들은 마치 스위스 치즈를 연상케도 한다. 큰 구멍들은 그들의 거처요, 은신처였으리라. 암산에서 내려다보니 밑이 아찔하다. 마주 보는 숲에는 노오란 가을단풍이 한창이다. 가을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Bandelier에서 멀지 않은 White Rock Overlook에서는 저 멀리로 눈을 인 흰 산머리가 둘러 있고 까마득하게 아래로는 뉴멕시코의 젖줄인 리오그란데 강이 길게 굽어 흐르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샌타페는 뉴멕시코의 주도로 1610년에 미국 최초로 지역 수도로 지정된 역사 깊은 도시다. 미국 최초의 가톨릭 성당인 San Miguel Chape(1610년 건축)와 유명 여류화가 Georgia O’Keefe Museum을 둘러보고 뉴멕시코를 사랑해서 40여년을 이곳에서 산 그의 생애의 흔적과 미술품들을 접하는 기회를 가졌다.

B-29 폭격기

또한 샌타페의 북동쪽에 위치한 Chiricahua 성당은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넓은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데, 물소리를 내며 흘러내리는 맑은 개천을 끼고 있어 일행에게 기쁨과 청량감을 선사해 주었다. 이곳은 치유의 역사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순례지다.

무엇보다 이번 여행에서는 푸짐하고 맛있는 멕시칸 음식을 자주 먹었는데 그 중에서도 처음 먹어보는 갓 구워 따끈한 속이 빈 소파피아 빵(우리는 이를 공갈빵이라 이름함)을 꿀에 찍어 먹는 맛이 일품이었다.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이경화 선배님이 추천한 National Museum of Nuclear Science and History였는데 이곳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떨어뜨린 원자폭탄과 똑같은 모형물 돌과 이들 원자탄을 실었던 B-29 폭격기가 전시되어 있어, 이로 인해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고 결국은 조국의 해방을 가져온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리 일행은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드디어 모든 여행 일정을 마치고 내일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이번 여행자들이 머리속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 지나간다. 무엇보다도 엄청난 대자연의 경이로움에 빠진 여행이었다.

since 1999 **듀오** USA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결혼해듀오



www.duouusa.net

LA **213-383-2525**
NY **201-947-2525**

www.yongsusanla.com



개성요리 · 궁중요리 전문점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Tel : **213. 388. 3042** Mon thru Sun 11:30am ~ 10pm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오늘까지 일구어온 모든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엔 더 가슴 뛰는 이야기가 꽃피울 수 있도록,
귀하의 가문만을 위한 서비스를 디자인합니다.

Manage Your Family Like a Business

웰씨앤와이즈 패밀리오피스

Multi-generational Wealth Management
영속적 가문 자산관리

Next Generation Education
다음세대 교육

Investment Strategy
투자전략

Concierge
컨시어지

Philanthropy
필란트로피



Wealthy & Wise
■ Baltimore ■ Honolulu ■ Seoul
■ 410.469.9532 ■ 345 N. Charles St, Baltimore, Maryland
■ 808.427.8434 ■ 1003 Bishop St, Suite 2700, Honolulu, Hawaii
■ www.wnwinc.co.kr ■ info@wnwinc.co.kr
■ 이태영 (법학과 60) 웰씨앤와이즈 설립자, 상임고문
■ 박상우 (경영전문대학원 06) 웰씨앤와이즈 한국법인 대표이사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 -故고광선(공대57)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조지아 - 주중광(약대60)
조지아 - 허지영(문리66)

골드이사 (\$10,000이상)

남가주 - 김일영(의대65)
남가주 - 노명호(공대61)
남가주 - 박창규(약대59)
남가주 - 서치원(공대69)
남가주 - 성낙호(치대63)
남가주 - 심화섭(약대61)
남가주 - 이기준(법대54)
남가주 - 이병준(상대55)
남가주 - 이흥표(의대58)
남가주 - 한홍택(공대60)
남가주 - 벤자민 홍(문리53)
네바다 - 정상진(상대59)
뉴잉글랜드 - 박영철(농대64)
뉴잉글랜드 - 윤상래(수의62)
뉴잉글랜드 - 정선주(간호68)
뉴잉글랜드 - 최홍균(공대69)
북가주 - 김정희(음대56)
북가주 - 민병곤(공대65)
북가주 - 전해경(문리67)
시카고 - 이용락(공대48)
워싱턴주 - 양남주(명예이사)
코네티컷 - 오인석(법대58)
워싱턴DC - 이태영(법대60)

실버이사 (\$5,000이상)

남가주 -故김원경(약대59)
남가주 - 김병연(공대68)
남가주 - 이종도(공대66)
남가주 - 정재훈(공대64)

남가주 - 한귀희(미대68)
루지애나 - 강영빈(문리58)
워싱턴주 - 김재훈(공대72)
워싱턴DC - 남옥현(경영84)
조지아 - 김경숙(사대64)
조지아 - 김태형(의대57)
필라델피아 - 이만택(의대52)
필라델피아 - 신의석(공대53)

종신이사 (\$3,000이상)

남가주

故노재성(법대58)
故서영석(의대55)
故오재인(치대33)
故윤낙승(의대60)
강신용(사대73)
곽웅길(문리59)
권기홍(의대60)
권봉성(문리64)
김경숙(간호68)
김기형(상대75)
김동훈(의대71)
김보연(간호63)
김상찬(문리65)
김성호(법대64)
김수영(사대57)
김재영(농대62)
나두섭(의대66)
류재풍(법대60)
박명근(상대63)
박용필(문리66)
박원준(공대53)
박윤수(문리48)
박종수(수의58)
방명진(공대73)
백만일(공대64)
서동영(사대60)

신영찬(의대63)
심상은(상대54)
안병일(의대63)
오홍조(치대56)
이근원(공대67)
이명선(상대58)
이세열(사대57)
이승훈(상대74)
이청광(상대61)
임낙균(약대64)
임용오(의대57)
전희택(의대58)
정동구(공대57)
정임현(간호72)
정철룡(의대55)
제영혜(가정71)
조용원(문리66)
조한원(의대57)
차민영(의대76)
차중환(사대54)
하기환(공대66)
한호동(공대58)
홍성선(약대72)
홍종화(약대74)

뉴욕

故김광호(문리62)
故한창섭(문리57)
강에드워드(사60)
고애자(음대57)
권영국(상대60)
김승호(공대71)
김종률(사대51)
김한중(의대56)
김해암(의대52)
배정희(사대54)
석창호(의대66)

신응남(농대70)
윤종숙(약대66)
이강홍(상대60)
이기영(농대70)
이대영(문리64)
이재덕(법대60)
이재량(상대61)
이전구(농대60)
이준행(공대47)
이태호(상대58)
최수용(상대55)
최영태(문리67)
추재욱(의대57)
한태진(의대58)
허선형(의대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보건69)
故박경민(의대53)
김광수(문리73)
고종성(사대75)
김문소(수의61)
김용구(공대66)
오세경(약대61)
윤선홍(치대64)
이의인(공대68)
전신의(문리57)
정정욱(의대60)
정태영(문리71)
조만연(상대58)
홍지복(간호70)

워싱턴DC

공순옥(간호66)
방은호(약대43)
박명일(농대69)
서취원(의대57)

오인환(문리63)
이내원(사대58)
이선구(문리65)
이윤주(상대63)
최지원(의대61)

미시간

故남상용(공대52)
장병진(공대61)
정태(의대57)

샌디에고

임천빈(문리61)

북가주

강재호(상대57)
손석보(공대68)
윤정욱(약대50)
한만섭(공대49)

시카고

강영국(수의67)
심상구(상대63)
이재희(치대67)
장윤일(공대60)
조봉암(법대53)
최의필(의대53)
한재은(의대59)

오레곤

김상순(상대67)
이은상(상대52)

미네소타

강연식(사대58)
권기현(사대53)
김권식(공대61)

김태환(의대58)
남세현(공대67)
민홍기(문리61)
변우진(인문81)
조형준(문리62)
황효숙(사대65)

아이오와

김시근(공대72)

오하이오

김용현(경영66)

워싱턴주

故김영일(공53)
이명자(간호74)
이희백(의대55)
임현민(공대84)

조지아

김용건(문리48)

코네티컷

유시영(문리68)

플로리다

김중권(의대63)

텍사스

박태우(공대64)
이광연(공대60)
조시호(문리59)

필라델피아

고병은(문리55)
김영우(공대55)

김현영(수의58)
서종민(공대64)
손재욱(가정77)
신성식(공대56)
주기목(수의68)

하틀랜드

김경숙(가정70)
김명자(문리62)
배규영(사대68)
오명순(가정69)
이교락(의대53)
이상강(의대70)

휴스턴

박진섭(의대67)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213-908-5586

www.snuaa.org
news@snuaa.org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2.7.1 - 2023.6.30; 제2차 회기: 2023.7.1 - 2024.6.30) 볼드는 제 2차회기

남가주

강경수(법 58)
강동순(법 59)
강윤희(간 46)
강창만(의 58)
강호석(상 81)
강홍제(상 53)
고윤석(공 62)
권기상(대 72)
김건진(문 62)
김경(문 63)
김경수(사 54)
김경욱(미 61)
김광은(음 56)
김교복(농 63)
김국간(치 64)
김근(농 78)
김동산(법 59)
김명숙(농 58)
김문엽(농 83)
김범수(문 61)
김병연(공 68)
김병완(공 58)
김상찬(문 65)
김석구(공 66)
김석홍(법 59)
김성호(법 64)
김수향(간 68)
김순길(법 54)
김순자 치 57)
김영덕(법 58)
김영중(치 66)
김옥경(생 60)
김원탁(공 65)
김원호(약 63)
김일영(의 65)
김은숙(미 62)
김정(치 59)
김정호(농 59)
김종범(상 64)
김종표(법 58)
김준일(공 62)
김재영(농 62)
김진식(공 66)
김태환(문 78)
김학철(의 55)
김희창(공 64)
나두섭(의 66)
노명호(공 61)
니승욱(문 59)
문경호(문 59)
문병길(문 61)
박명근(상 63)
박부강(사 64)
박서규(법 56)
박영욱(사 55)
박우선(공 57)
박원준(공 53)
박은숙(미 62)
박인수(농 64)
박인창(농 65)
박용 (문 89)
박자경(생 60)
박정모(문 66)
박종수(수 58)
박찬호(농 63)
박창규(약 59)
박취서(약 60)
박호현(의 52)
박희자(음 68)
방명진(공 73)
배동완(공 65)
백승호(치 55)
백혜란(미 70)
서동영(사 60)
서명희(농 67)
서세진(음 62)
서의원(공 66)
서치원(공 69)
성낙호(치 63)
성주경(상 68)
손기용(의 55)
손학식(공 61)
송명국(문 81)
신건호(법 53)

신동국(수 76)
신정연(미 61)
심재호(공 75)
양태준(상 56)
오윤표(음 56)
오선웅(의 63)
오찬수(약 57)
오형원(의 53)
위종민(공 64)
유석홍(상 61)
유영자(음 63)
유이중(농 74)
윤경민(법 55)
윤석철(상 60)
윤희성(치 65)
이강훈(치 65)
이건섭(치 54)
이건일(의 62)
이덕승(의 54)
이미정(의 78)
이방기(농 59)
이범모(치 74)
이법식(공 61)
이서희(법 70)
이성자(간 76)
이소희(의 61)
이영수(상 60)
이영현(간 70)
이원익(문 73)
이원택(의 71)
이익삼(사 58)
이장길(치 63)
이재권(법 56)
이재룡(공 71)
이정근(사 60)
이정화(공 52)
이종모(간 69)
이준호(상 65)
이진영(의 65)
이진무(상 64)
이재진(문 55)
이청광(상 61)
이해영(공 56)
이호(음 92)
이호진(간 74)
이홍표(의 58)
임낙균(약 64)
임동규(미 57)
임동호(약 55)
임문빈(상 58)
임재영(공 59)
임창희(공 73)
장근숙(간 73)
장기열(치 55)
장기창(공 56)
장동석(문 66)
장소현(미 65)
장원경(미 73)
장윤희(사 54)
장인숙(간 70)
전낙관(사 60)
전원일(의 77)
전상욱(사 52)
정병혁(농 70)
정수만(의 66)
정연웅(상 63)
정민환(법 54)
정재형
정진우(의 66)
정형민(문 71)
정황(공 64)
조경애(음 64)
조상하(치 64)
조상호(농 51)
조선주(간 69)
조재국(농 67)
주민희(음 51)
주정래(상 65)
지종근(농 56)
차종환(사 54)
최영구(상 61)
최영순(간 69)
최영지(미 62)
최용완(공 57)
최종권(문 59)

추교훈(농 63)
한동수(의 60)
한성구(상 53)
한원민(의 59)
한중철(치 62)
한홍택(공 60)
한효동(공 58)
홍병각(문 55)
홍선례(음 70)
홍선일(공 71)
홍수웅(의 59)
황건홍(공 55)
황현상(의 55)

뉴욕

강교숙(간 73)
강에드워드(사 60)
계동휘(치 67)
고애자(음 57)
곽노섭(문 45)
권영국(상 60)
권문웅(미 61)
권정환(의 58)
금영천(약 72)
김광현(미 57)
김기택(수 81)
김동환(약 60)
김문경(약 61)
김병권(문 63)
김복영(간 69)
김세환(공 65)
김승호(공 71)
김영길(문 62)
김영수(법 66)
김영진(의 53)
김영철(의 55)
김영희(간 53)
김완주(의 54)
김용연(문 63)
김옥현(의 59)
김유순(간 64)
김정희(약 56)
김정희(간 69)
김창수(약 64)
김현중(공 63)
리준무(음 65)
문석면(의 52)
박건이(공 60)
박경희(음 57)
박상원(음 69)
박수안(의 59)
박순영(법 56)
박승화(간 69)
방준재(의 63)
배상규(약 60)
배정희(사 54)
서랑(의 63)
서충선(사 57)
석창호(의 66)
선종철(의 57)
성기로(약 57)
손갑수(약 59)
손완배(농 70)
송근숙(간 66)
송기인(의 60)
송웅길(대 69)
신두식(의 58)
신응남(농 70)
신춘희(간 56)
안태홍(상 65)
양명자(사 63)
양성택(상 66)
오용호(의 66)
오용환(약 68)
우규환(사 60)
우상영(상 59)
원인순(문 67)
유재섭(공 65)
유택상(문 58)
윤병남(사 62)
윤영섭(의 57)
윤인숙(간 63)
윤철(문 54)
윤희정(문 59)
이강홍(상 60)

이명중(공 72)
이상근(경 84)
이상무(의 56)
이영재(사 58)
이정은(의 58)
이재덕(법 60)
이재진(의 59)
이태봉(의 56)
이태안(의 61)
이해청(약 62)
이형근(수 60)
전성진(사 54)
정동성(상 58)
정해민(법 55)
정화웅(사 61)
조남천(사 59)
조대영(공 61)
조득환(의 61)
조종수(공 64)
차국만(상 56)
최영태(문 67)
최정웅(시 63)
최한용(농 58)
최혁(음 72)
최형무(법 69)
한병웅(문 71)
한승순(간 70)
허선행(의 58)
허영자(약 63)
허용웅(상 63)
허유선(생 83)
현건섭(공 55)
홍정표(음 67)
홍종만(공 64)

뉴잉글랜드

곽노균(상 51)
김경일(공 58)
김기남(간 67)
김진혁(약 59)
김형범(문 57)
박영철(농 64)
박종건(의 56)
송미자(농 62)
윤영자(미 60)
윤상래(수 62)
이강원(공 66)
이규진(약 60)
이은주(음 73)
정선주(간 68)
주창준(의 59)
최선희(문 69)

네바다

김택수(의 51)
이학은(약 57)
정상진(상 59)

미네소타

남세현(공 67)
문성인(공 88)
변우진
성욱진(치 87)
송세진(치 78)
송창원(문 53)
이창재(문 51)
주한수(수 62)

미시간

김우신(의 60)
김재석(의 61)
김정화(음 56)
김희주(의 62)
고선희(문 63)
남성희(의 56)
신동화(문 55)
오동환(의 65)
윤효윤(의 63)
이민우(의 61)
이성길(의 65)
이재승(의 55)
장철(의 65)
조문희(공 56)
조영현(음 95)
주명순(간 64)

하계현(공 64)
한영신(생 86)

북가주

강윤희(간 72)
강재호(상 57)
강정수(문 61)
권오형(사 61)
김기덕(문 74)
김정희(법 56)
김현왕(공 64)
김희경(음 73)
남광순(음 64)
박경용(약 63)
박서규(법 56)
박종성(법 53)
부영무(치 72)
손창순(공 69)
송영훈(상 57)
신규영(공 64)
안호삼(문 58)
오명주(간 77)
온기철(의 65)
위장호(의 67)
이강우(문 59)
이성원(공 65)
이성형(공 57)
이은수(사 64)
이장우(문 72)
이정남(공 63)
임승쾌(문 66)
임정란(음 76)
전병련(공 54)
정지선(상 58)
정준임(간 67)
정한규(의 63)
조태묵(사 60)
천동우(공 63)
최경선(농 65)
김선혁(약 59)
홍병익(공 68)
황동하(의 65)
황만익(사 59)

샌디에고

오계환(공 64)
윤진수(의 57)
이문상(공 62)
이영신(간 77)
이휘영(법 59)

시카고

강영국(수 67)
김길준(의 59)
김갑중(의 57)
김규호(의 58)
김동희(공 66)
김사직(상 59)
김성일(공 68)
김승주(간 69)
김용주(공 69)
김용환(공 71)
김현주(문 61)
노영일(의 62)
박정일(의 61)
박창욱(공 56)
서상현(의 65)
소진문(치 58)
송재현(의 46)
신석균(문 54)
안신훈(농 61)
안영학(문 57)
안창현(의 55)
오명자(간 60)
육길원(사 59)
윤경순(사 61)
이경미(미 69)
이덕수(문 58)
이동균(공 75)
이소희(간 68)
이승자(사 60)
이시영
이영섭(수 56)
이영우(문 66)
故 이윤모(농 57)

이종일(의 65)
임영신(의 56)
임현재(의 59)
정승규(공 60)
정연학(공 63)
최대한(의 53)
최혜숙(의 53)
최희수(문 67)
한의일(공 62)
한재은(의 59)
홍청일(약 57)
황소나
황치룡(문 65)

알래스카

윤제중(농 55)

오레곤

한영준(사 60)
최용성(의 55)
한국남(공 57)

오하이오

김태웅(의 61)
송용재(의 63)
유덕영(공 57)
이영웅(의 62)

워싱턴DC

고무환(법 57)
곽명수(문 65)
권정도(치 63)
권철수(의 68)
김동훈(법 56)
김명자(법 52)
김명철(공 60)
김영란(사 58)
김용덕(의 53)
김윤호(공 64)
김순환(치 88)
김해식(공 59)
김희주(의 62)
나연수(사 54)
박영태(상 63)
박영호(공 64)
박인영(의 69)
박일영(문 59)
박홍우(문 61)
백순(법 58)
백용현(공 64)
서윤석(의 62)
석균범(문 61)
양광수(공 73)
오광동(공 52)
오인환(문 63)
우관해(음 63)
우제형(상 54)
원종민(약 57)
유달(의 61)
유영준(의 70)
유정식(수 60)
유한창(공 69)
유홍일(문 74)
이건형(수 54)
이규양(문 62)
이내원(사 58)
이선구(문 65)
이성배(수 57)
이수안(공 54)
이연주(치 88)
이영덕(사 61)
이영목(공 59)
이윤주(상 63)
이재승(의 55)
이창국(의 52)
이준영(치 74)
이진상(공 57)

이철수(공 61)
이해청(약 62)
정원자(농 62)
조영희(문 66)
조화유(문 61)
천건희
최경수(문 54)
최동호(문 68)
최재귀(미 63)
한의생(수 60)
홍영석(공 58)
황보한(공 56)

워싱턴주

김인배(수 59)
김재호(상 54)
김재훈(공 72)
류성열(공 72)
민영기(공 65)
박진수(의 56)
양용관(수 62)
윤석진(문 64)
이길승(상 57)
이원섭(농 77)
이회백(의 55)
장대홍(공 65)
장현길(공 60)
전병택(상 65)
정영자(사 56)

유타

김인기(문 58)

조지아

김기춘(공 61)
김영서(상 54)
김학래(공 60)
김현희(간 59)
노한순(농 56)
서광모(공 65)
송용덕(의 57)
오경호(수 60)
이종석(의 54)
임수암(공 62)
임한웅(공 60)
정선휘(공 65)

캐롤라이나

김기현(문 52)
마동일(의 57)
이종영(문 58)
한광수(의 57)

커네티컷

김기훈(상 56)
라찬국(의 57)
신경호(의 57)
최창승(의 52)
홍성휘(공 56)

콜로라도

이정화(의 61)

테네시

김경덕(공 75)
서갑식(공 70)

텍사스

김장환(공 81)
박유미(약 62)
박태우(공 64)
송요한(문 73)
유황(농 56)
윤영주(문 60)
이석호(농 78)
전중희(공 56)
조진태(문 57)

진기주(상 60)
천양국(의 63)
황명규(공 61)

플로리다

김동한(문 53)
김성준(의 55)
박창익(농 64)
오석일(의 64)
이정필(의 58)
임필순(의 54)
조동건(공 69)

필라델피아

김경희(생 71)
김국간(치 64)
김순주(치 95)
김영우(공 55)
김정현(공 68)
김재술(약 58)
김진우(공 62)
김현영(수 58)
배성호(의 65)
서의원(공 66)
서준민(공 64)
성기호(상 59)
성정호(약 59)
손재욱(생 77)
송성균(공 50)
신선자(사 60)
신성식(공 56)
안세현(의 62)
오진석(치 56)
윤경숙(문 59)
윤종나(음 57)
이규호(공 56)
이만택(의 52)
이문호(공 53)
이성숙(생 74)
정덕준(상 63)
조영호(음 54)
조정현(수 58)
조화연(음 64)
주기록(수 68)
지홍민(수 61)
최종무(상 63)
최현태(문 62)
한동휘(문 57)

하와이

김달욱(사 45)
김용진(공 50)
박성재(상 57)
안은식(문 55)
이재형(수 61)
하인환(공 56)
최경윤(사 51)

하트랜드

김경숙(가 70)
오택호(의 56)
정민재(농 70)
최은관

휴스턴

김영일(의 55)
박석규(간 59)
유한창(공 69)
이길영(문 59)
최관일(공 54)
최성호(문 58)
최용천(의 53)

룩키마운틴스

이경화(공 56)

알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말일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30@gmail.com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우크라이나 기부금 2021.7.1 - 2023.6.30

일반후원금

남가주	
강신웅 (사73)	200
구철헌 (의78)	125
권기상 (대72)	105
김기형 (상75)	1,400
김동석 (음64)	200
김병연 (공68)	200
김새담 (법55)	25
김영 (수63)	500
김영봉 (사60)	200
김영중 (치66)	75
김영희 (간54)	50
김영우 (수62)	1,000
김영준 (음59)	400
김종철 (문66)	100,000
김종표 (법58)	200
나두섭 (의66)	200
노명호 (공61)	25,000
노진걸 (사70)	200
박용필 (문66)	1,000
박우선 (공57)	500
박원준 (공53)	200
박원숙 (미62)	200
박중수 (수58)	12,000
박혜란 (음72)	300
방석훈 (문55)	500
성주경 (상68)	200
송영두 (공59)	200
신영철 (의63)	200
안혜정 (생77)	200
오윤표 (음56)	200
오찬수 (약57)	200
오홍조 (치56)	50
유의영 (의62)	200
이건일 (의62)	200
이명선 (상58)	500
이법식 (공61)	575
이병준 (상55)	3,000
이소희 (의61)	75
이장길 (치63)	50
이정신 (법57)	500
임낙균 (약64)	1,000
장동석 (문66)	200
전낙관 (시60)	75
전원일 (의77)	75
정균희 (의65)	10,000
정신 (대92)	1,000
정재훈 (공64)	260
최용완 (공57)	100
최종권 (문59)	220
최진석 (법64)	25
한귀희 (미68)	2,000
한홍택 (공60)	200
황현상 (의55)	350

뉴욕	
강에드워드 (사60)	200
강창홍 (의63)	50
고애자 (음57)	50
권영국 (상60)	200
금영천 (약72)	1,000
김명철 (공60)	200
김승호 (공 71)	1,000

김완주 (의54)	75
김은희 (간78)	200
김중원 (사58)	50
김중권 (의63)	200
리준무 (음65)	200
문석면 (의52)	200
박순영 (법56)	75
서량 (의63)	75
선종철 (의57)	100
신응남 (농70)	2,400
오용호 (의66)	200
이강홍 (상60)	200
이재덕 (법60)	75
이전구 (농60)	500
조남천 (사59)	350
조태환 (상56)	50
차수만 (약71)	300
최한용 (농58)	1,500
최혁 (음72)	200
한승순 (간70)	150
허선행 (의58)	400
홍중만 (공64)	200
네바다	
정상진 (상59)	350
미네소타	
문성인 (공88)	50
미시간	
김희주 (의62)	225
오동환 (의65)	400
윤효윤 (의56)	200
이성길 (의65)	100
이정화 (음56)	200
이재승 (의55)	75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62)	500
박영철 (농64)	100
박중승 (의56)	200
정선주 (간68)	100
주창준 (의50)	200
북가주	
부영무 (치72)	200
한상봉 (수67)	500
황만익 (사59)	200
샌디에고	
이휘영 (법59)	75
임춘수 (의57)	200
플로리다	
오석일 (의 64)	200
임필순 (의54)	200
조경호 (의66)	200
하트랜드	
고 차봉희 (의51)	500
이상강 (의70)	10,000
최은관	500
하와이	
김용진 (공 50)	100
오레곤	
김상순 (상67)	200

시카고	
김현주 (문61)	100
소진문 (치58)	400
이영섭 (수56)	75
이용락 (공48)	1,000
임영신 (의56)	100
정의철	250
최희수 (문67)	200
한경진 (상59)	200
텍사스	
박영규 (사66)	200
이석호 (농78)	200
진기주 (상60)	500
황명규 (공61)	200
필라델피아	
윤경숙 (문59)	200
이만택 (의52)	400
이성숙 (생74)	200
이승공 (의63)	200
정태광 (공74)	100
지흥민 (수61)	200
손재옥 (생77)	200
워싱턴	
민영기 (공65)	75
조지아	
정양수 (의60)	25
김용건 (문48)	200
송용덕 (의 57)	200
워싱턴DC	
강길중 (약69)	200
고우현 (법57)	200
권철수 (의68)	200
김동훈 (법56)	200
김영준 (치88)	200
남옥현 (경84)	1,000
박평일 (농69)	900
박홍우 (문61)	200
변광록 (간72)	200
백순 (법58)	200
서문석 (의62)	200
석균범 (문61)	200
석보환 (사68)	200
오인환 (문63)	600
유영준 (의70)	175
이건형 (수54)	25
이내원 (수58)	75
이선구 (문65)	275
이연주 (치88)	200
이영록 (공59)	200
정평희 (공71)	200
조화유 (문61)	75
테네시	
김경덕 (공 75)	100
캐롤라이나	
한광수 (의57)	500
커네티컷	
김기훈 (상56)	200
최창승 (의52)	500

캐나다 밴쿠버	
장희순 (문75)	388
광고후원금	
남가주	
강호석 (상81)	240
고석자 (인72)	600
김경무 (공69)	400
김양희 (음77)	3,700
김원탁 (공65)	480
김은중 (상59)	600
김자성 (의79)	1,500
김정빈 (공66)	500
나두섭 (의66)	200
나정자 (간70)	400
미주동창회 (11대)	1,000
미주재단	12,000
민일기 (약69)	500
박수경 (생84)	3,900
박제환 (문75)	500
박찬호 (생58)	300
서동영 (사60)	480
서지원 (공69)	2,500
안혜정 (생77)	800
양수진 (간80)	500
이기준 (법54)	500
이명선 (상58)	1,000
이범모 (치74)	250
이병준 (상55)	1,200
이상대 (농80)	240
이원택 (의65)	2,200
이종묘 (간69)	480
임준택 (상68)	400
정재훈 (공64)	240
주영세 (사59)	400
차민영 (의76)	7,500
최무식 (약66)	240
최용준 (수81)	400
한효홍 (공58)	300
홍훈정 (음70)	400
뉴욕	
김기택 (수81)	240
김승호 (공71)	1500
석창호 (의66)	240
신응남 (농70)	240
이전구 (농60)	240
워싱턴DC	
남옥현 (경84)	9,300
이내원 (사58)	1,000
이태영 (법60)	1,800
모교발전기금	
남가주	
박우선 (공57)	300
박원준 (공53)	700
배병욱 (음 58)	300
이범모 (치74)	200
홍선일 (공71)	100
샌디에고	
임춘수 (의57)	200

워싱턴DC	
권철수 (의68)	100
최재귀 (미63)	300
워싱턴주	
이원섭 (농77)	150
필라델피아	
손재옥 (생77)	100
플로리다	
오석일 (의64)	100
장학기금	
남가주	
박원준 (공53)	300
이법식 (공61)	100
전상옥 (사52)	100
한홍택 (공60)	50,000
시카고	
김현주 (문61)	100
이용락 (공48)	300
최혜숙 (의53)	100
북가주	
신규영 (공64)	200
뉴욕	
선종철 (의57)	100
신응남 (농70)	200
이강홍 (상60)	500
필라델피아	
손재옥 (생77)	100
윤경숙 (문59)	100
미시간	
이정화 (음66)	175
워싱턴 DC	
오인환 (문63)	175
조지아	
이종석 (의54)	200
Brain Network	
시카고	
이용락 (공48)	200
조중행 (의63)	100
필라델피아	
손재옥 (생77)	100
워싱턴 DC	
서취열 (의57)	300
지부분담금	
샌디에고	550
뉴욕	3,000
뉴잉글랜드	1,000
워싱턴DC	2,000
필라델피아	1,000
시카고	2,400

조지아	800
오레곤	300
플로리다	300
오하이오	300
알래스카	200
남가주	3000
캐롤라이나	200
하와이	300
미네소타	600
Charity Fund(나눔)	
남가주	
이법식 (공 61)	100
임낙균 (약 64)	3850
필라델피아	
손재옥 (생77)	100
시카고	
강영국 (수 67)	100
우크라이나 기부금	
남가주	
구상선	50
노명호 (공 61)	1,000
유의영	100
이정남	200
이호진 (간74)	100
서진 (간56)	3,000
안혜정 (생77)	300
한홍택 (공60)	1,000
홍중화 (약74)	500
북가주	
이장우 (문72)	100
뉴욕	
민준기 (공59)	100
조상근 (법69)	1,000
조지아	
김용건 (문48)	200
유성무 (상66)	300
오레곤	
한영준 (사60)	100
워싱턴DC	
최재귀 (미63)	200
커네티컷	
유시영 (문68)	500
워싱턴	
이길송 (상57)	100
시카고	
김신웅 (생59)	300
재환수 (사61)	200
휴스턴	
진기주 (상60)	1,000
캐나다 밴쿠버	
장희순 (문75)	100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62)	200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 \$200	☐ \$100 (2022.7 - 2023.6)	☐ \$240 (2022.7 - 2023.6)	☐ Scholarship Fund (장학금) \$_____
☐ \$500	☐ \$200 (2022.7 - 2024.6)	☐ \$480 (2022.7 - 2024.6)	☐ Charity Fund (나눔) \$_____
☐ \$1,000			☐ Brain Network 후원금 \$_____
☐ \$ _____	☐ \$3,000 이상(종신이사회비)	일반 광고 문의: snuaausa30@gmail.com	☐ 모교발전기금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_____.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보낼 곳: SNUAA-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Tel: (213)908-5586 | Email: snuaausa30@gmail.com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남가주지역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공대66)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 그룹
한태호(인문대 75) www.haanlaw.com
213-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A, CA 90010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사대 81)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 Of Kyung Hee Lee

이경희(인문대 83) imin@iminusa.net
213-385-4646
3435 Wilshire Blvd.,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rit Realty
이종묘(간호대 69) jenniecelee@gmail.com
714-396-0624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정정우(수의대 74)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vello, CA 90640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법대 50)
213-382-6660
3575 Wilshire Blvd., LA, CA 90010

병원

실로암병원

정균희(의대 64)
213-386-8602
2528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동물병원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64)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 76)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Gilbert Drugs

최무식(약대 66)
714-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김경무(공대 69) kyungmookim@yahoo.com
(213) 616-1390
114 Washing Blvd., #C, Marina Del Ray, CA 90292

SHIN-YONG KANG CPA

강신용(사대 73) 공인회계사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Lee Kang Won CPA

이강원(인문대 76)
(213)387-1234
3600 Wilshire Blvd., #930, LA, CA 90010

GSK LLP

강호석(상대 81) cpa@hosukgangcpa.com
(213)380-5060 (LA, CA)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장 준(인문대 85)
(818)77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상대 68) choontaikim@gmail.com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CPA

김원철(농대) kimandhwang@cs.com
213-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www.linkboxusa.com

김원탁(공대 65) linkboxusa@gmail.co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jchung@taycoeng.com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부품

서동영(사대 60)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818-720-2373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뉴욕지역

공인회계사

KI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상대 64)
1430 Broadway St., 3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www.nycgolfcenter.com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petershinesq@gmail.com
718-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I #UI-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윤의규(상대 82) edwarded.yun@edwardjones.com
201-978-7055
560 Sullivan Ave St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201-302-9774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changhsuk@aol.com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의대 72) cleel34597@aol.com
718-762-4400
40-5 Br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haeahm@aol.com
212-879-2322
230 East 73Rd Street St., 1A, New York, NY 10021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229-1188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박종효 소아과

박종효(의대 79)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의대 73)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공대 71)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6대 노명호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usa30@gmail.com



32인승 22년형 새버스 도입!

아주만이 한인 체형에 맞춘 특별버스 도입! 아주 미서부 투어는 프리미어 버스로! 미서부는 물론 모국관광,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는 세계일주 여행은 아주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진사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앤탈롭캐년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의 고품격 서비스

업계 유일 40년 무사고!

아주투어는 안전을 최우선하는 철저한 안전경영 덕분에 업계에서 유일하게 '40년 무사고'라는 경이적인 안전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0년 역사의 관광회사

40년 역사! 미주 최대의 한인 여행사이자 최장수 기업입니다. 84년 창립된 이래 늘 1위 자리를 지킨 진정한 1등 여행사! 믿을 만한 관광은 아주투어 뿐입니다.

봉사하는 기업! 아주투어

IMF 외환위기, 금모으기 운동의 효시가 된 '모국에 달러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고, 한국에 외화가 가도록 '모국관광' 상품을 최초로 개발. 다양한 무료관광 봉사 진행

믿을만한 1등 관광회사

40년 한우물. 직접 발로 뛰며 개발한 여행상품은 업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박평식대표는 지금도 한 달에 한번 이상 현지로 손님과 함께 투어를 떠납니다.

최강의 호텔 네트워크

라스베이거스의 3대 체인 MGM(Bellagio, Luxor 등), Caesars(Caesars, Harrah's 등), Sands(Venetian, Palazzo) 컨트랙을 보유. 전세계 파트너십으로 최고의 호텔

업계 최고의 가이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있는 아주투어 가이드는 고객에게 감동을 드리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풍부한 정보, 재치와 유머로 고객의 힐링투어를 책임집니다.

고객만족도 전미주 1등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1등

USO이쥬투어
CST 2052210-10

213-388-4000

서울지사 T. 02-522-8686 / E. seoul@usajutour.com
833 S. Western Ave #35-A, L.A., CA 90005

www.usajutour.com

facebook.com/ajutour

twitter.com/usajut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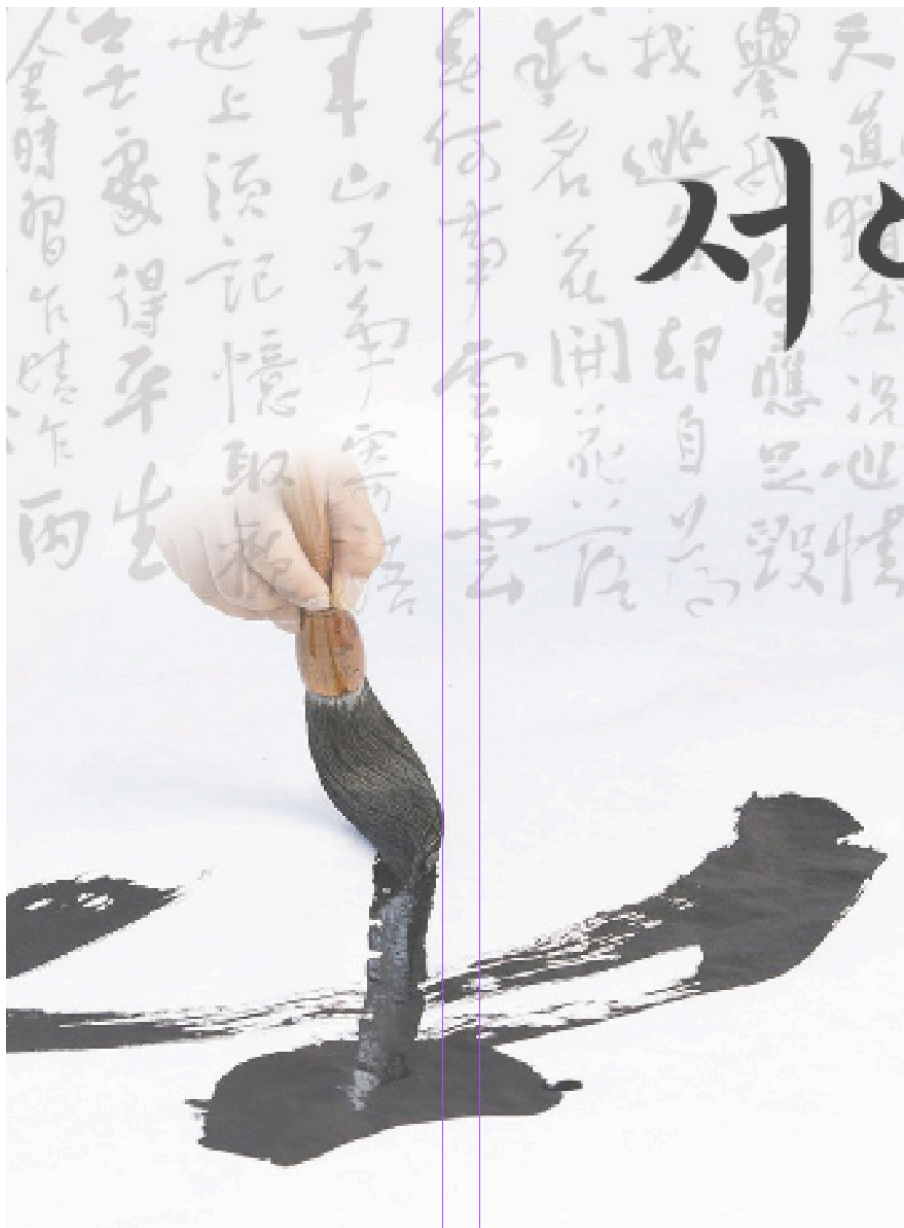
서예반 모집

지도: 정인환(법대 54)

일시: 매주 화 10AM~12PM

장소: 작가의 집 동리홀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제16대 미주동창회

회장 노명호(공)
상임고문: 김종섭(문),
고문: 박종수(수), 주종광(약)

차기회장 이상강(의)
명예회장 신응남(농)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정호(공), 이관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강호석(상)
총무국장: 이호진(간)
재무국장: 이윤종(미)
IT 국장: 심재호(공)
문화 광고국장: 홍선례(음)
섭외국장: 안혜정(생)
홍보국장: 김자성(의)

동창회보
발행인: 노명호(공)
편집 고문: 박응필(문), 김정현(공)
편집위원: 김양희(음), 박승현(음), 이준수(공)
장만구(공), 한정희(미), 허유선(가)

장학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한홍택(공), 황경순(공), 강호석(상),
남성우(공), 김태환(자), 홍주선(상)

회칙위원회
위원장: 김병연(공)
위원: 김용현(상), 김지영(사), 성주경(상),
이민연(법), 조화연(음), 최경선(농), 최진석(법),
한재은(의)

포상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경무(공)
김영태(미)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213)908-5586	이메일 news@snuuaa.org	웹사이트 www.snuuaa.org
주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2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uausa30@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박제환(문리 75) T: (323)229-3369
jaycpa2000@gmail.com
차기 회장 김경무(공대68) T: (213)210-1110
kyungmookim@yahoo.com

북가주 SAN FRANCISCO (Jan~Dec)
회장 최경선(농대 65) T: (408)621-8080
kschoi@comcast.net
차기 회장 김법섭(공 79)

샌디에고 SAN DIEGO (Nov~Oct)
유재호(공대 90) T: (469)387-7922
blue9071@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회장 이명자(간호 74) T: (206)218-8887
drmalee@gmail.com
차기 회장 하혜숙(간호 77) T: (425)240-5633
annaparkha@g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회장 성낙길(문리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차기 회장 전수진 T: (808)956-8283
soojin@hawaii.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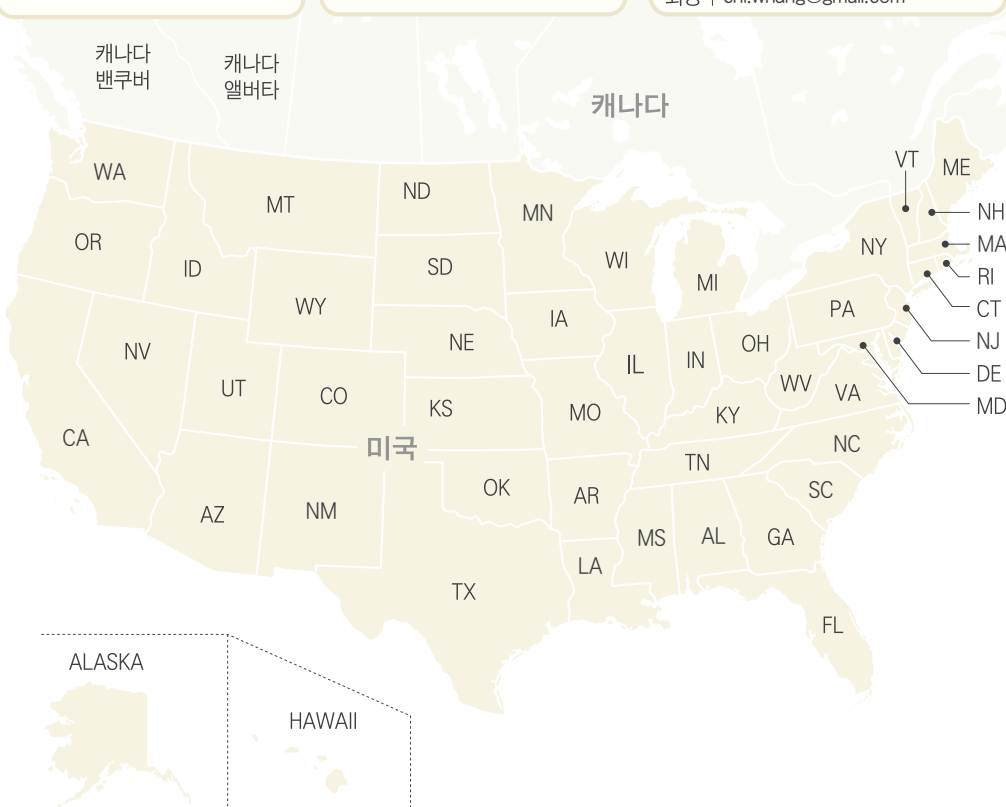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김순기(치대 82)
EricSophia@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룩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장희순(문리 75) T: (236)513-0376
p21.snuainvan@gmail.com
sphro17@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uon@hotmail.com

미시간 MICHIGAN (Jan~Dec)
회장 이광진(공 81), 248-595-2836
kmikelee@umich.edu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김승주(간호 69) T: (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차기 회장 황치룡(문리 65) T: (847)895-2814
chi.whang@gmail.com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회장 차재호(농공학 84) T: (651)769-5343
jaehocha@yahoo.com
차기 회장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회장 임영호(공대 72) 978-490-0118
Ynghlim@yahoo.com
차기 부장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뉴욕 NY/NJ (July~Jun)
회장 금영천(약대 72) T: (718)791-4397
yckum52@gmail.com
차기 회장 김정필(공대 71) T: (201)965-7759
jaypkim@keiusa.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회장 박상근(법대 75) T: (703)447-8175
sangkuenpark@gmail.com
차기 회장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커네티컷 CT
박용해(상대 83) T: (203)767-8187
yhptax@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회장 이종태(사대 71) T: (267)266-2881
leejt1530@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배혜영(음대 79) T: (678)943-9043
lhylbae@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휴스턴 HOUSTON (Jan~Dec)
구자동(상대 70) T: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임소연(음대 91) T: (785)764-6985
syounchun@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최희덕(사대 68) T: (973)610-5857
heeduklee@gmail.com

테네시 TENNESSEE (Jan~Dec)
김상호(공대 86) T: (856)386-1094
kimsh@ornl.gov



이명선(상대 58)

HOUSTON FEARLESS 76



A Division of HF Group

Houston Fearless provides products and services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supporting multiple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Intelligence (ISR) ground support platforms and applications. Our field-proven products and personnel are supporting activities at flight test facilities, forward operating locations, and military bases around the world. Houston Fearless is the recognized leader in sustaining U-2 ground support systems. Today, Houston Fearless continues to provide outstanding support to the U-2 program and is leaning forward to provide superior systems in support of fielded ISR platforms such as Project Liberty, Gorgon Stare, Predator, and Blue Devil. As new systems have been fielded, Houston Fearless has expanded and improved on our extensive line of products and services to properly support these systems. Houston Fearless is minority owned small business and a registered DoD contractor. Our facilities and highly skilled workforce are located on Beale Air Force Base in Northern California. In its celebrated 30 year relationship with the Air Force, Houston Fearless has become a trusted and respected partner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community and has been instrumental to mission success in the past and will continue to play this role in the future.

310-605-0755
www.hf76.com
203 W Artesia Blvd, Compton, CA 90220

www.Seoulmedicalgroup.com

차민영(의대 76)

빠르고
정확한
리퍼!

메디케어 HMO 주치의 선택은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 선생님!
빠르고 정확한 리퍼로 꼭 필요한 전문의를
찾아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하는
어르신들이 진정한 건강 영웅입니다!

메이저리그 코리안 특급
박찬호

시니어 여러분들이
건강영웅!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 메디칼 그룹의 모델들임을 알려드립니다.